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7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7 호 (176)

1960년 7월 15일

차　례

권 두 언

혁명 군중을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자

최근의 국 내외 정세 발전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대사변을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를 더욱 재촉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전 민족적 투쟁인 동시에 첨예한 계급 투쟁이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몰락하는 계급이 저절로 력사 무대에서 물러 간 일은 일찌기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은 필연적이며 이것은 오직 우리 당 주위에 결속된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에 의해서만 타승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범한 피착취 대중의 힘에 의거함이 없이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고유한 사상이며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이 확증한 진리이다.

김 일성 동지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날뛰고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조선 인민이 아직 완전히 단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며 《만일 우리 조선 인민이 한사람같이 단결한다면 우리에게는 싸워 이기지 못할 어떠한 적도 있을 수 없다》(선집, 제 2판, 4권, 226페지)고 하시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우리 당 주위에 결속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거니와 더우기 혁명적 대사변을 앞둔 오늘에 있어서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결속하기 위해서는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남반부의 반제 반봉건 애국 력량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이다. 이 력량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확고한 물질적 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대사변을 앞두고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특히 북반부의 모든 혁명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일층 강화할 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용이하게 그리고 결정적인 것으로 되게 할 것이며 장차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튼튼한 밑

천으로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북반부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성과 있게 추진될 것이며 민주 기지는 일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응당 남북 간의 자유로운 래왕과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타산하여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사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정세가 불원간에 닥쳐 오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의 력사가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의 모든 시기에 대중이 저절로 맑스주의 당을 따라 오거나 혁명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성되지 못하고 준비 정도가 낮은 뒤떨어진 군중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남반부의 인민 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심히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간에 자유로운 래왕이 실현되면 인민들은 서로 만나 접촉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정치적 영향을 주며 누가 누구를 쟁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또한 정당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때에는 우리 당이 남조선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남조선의 정당들도 북반부에 들어 와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 승부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다수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다수의 지지가 없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레닌은 《만일 정말 투쟁 시기에 근로자들의 다수—로동자들의 다수 뿐만 아니라 전체 피착취자들과 피압박자들의 다수—가 우리의 편에 있다면 그 때에는 참말로 승리할 것이다》(전집, 제 32권, 623페지)라고 말하였다.

북반부에 있는 혁명 군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어떠한 정치적 모략과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부대로 꾸림으로써만 남반부 인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그리고 반동 정당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남북 조선 주민의 다수를 전취하기 위한 투쟁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이 과업을 해결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도래하는 혁명적 대사변을 앞두고 북반부에 있는 모든 혁명 군중을 튼튼히 결속하는 것을 긴요한 과업으로 제기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혁명 수행에서 대중을 전취한다는 것은 기본 군중을 전취하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기본 군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며 그들의 정치적 자각을 일층 높여야 한다. 우리 혁명에서의 기본 군중은 로동자,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들이다.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오늘에 와서 극소수의 계급적 원쑤를 제외한 각계 각층 군중은 사실상 모두가 기본 군중이다.

우리는 이 기본 군중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거대한 사회주의적 대변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군중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혁명

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본 군중의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데 바로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는 근 40년 간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에 의한 남조선 강점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렬된 채 남북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사회 제도,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후퇴와 진공의 복잡한 전투 환경 속에서 적지 않은 군중들이 적들의 위협과 기만술책에 의하여 남으로 끌려 나갔으며 특히 미제 침략자들은 북반부 지역에서 조선 인민 동족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세력을 확대할 음흉한 목적으로 반혁명 분자들을 조종하여 각종 반동 단체들을 조작하고 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 들여 애국적 인민들의 학살 만행에 동원시켰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복잡한 력사적 과정은 불가피적으로 다수 주민의 사회 정치적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다가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져 가지고 대중을 분산시키면 공산주의로 나갈 사람은 몇 사람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몇 사람만 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서 그들끼리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대중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새 생활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러저러하게 문제되는 사람들을 다 개조해서 그들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 당은 오늘 의식적으로 우리 제도를 반대하고, 우리 당을 반대하고 우리 혁명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을 제외하고 우리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과거 성분이나 경력 관계, 친척 관계 등을 따지지말고 대담하게 믿고 교양 개조하여 모두다 공산주의에로 이끌고 나갈 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사람도 교양하며, 채 깨닫지 못한 사람도 깨우쳐서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가 인내성 있게 투쟁만 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계층들도 능히 그들을 포섭하고 개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였으며 혁명적 민주 기지는 반석같이 공고화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변혁의 결과 각계 각층 군중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그들의 사상 의식 령역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착취 계급은 청산되였으며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각계 각층 군중들의 정치 사상적 단결은 유일한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의 기초 우에서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절대 다수는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압박받고 착취 당한 근로 대중과, 생계나 유지할 수 있었던 중 소 기업가, 상인들이며 그들은 해방 후 15년 간의 실지 경험을 통하여 생활의 번영과 진정한 행복은 우리 당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제도하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극소수의 악질 분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군중이 우리 당을 따라 오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을 지지하여 나서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력량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사상적 투쟁을 통하여 당 대렬의 철석같은 통일 단결을 보장하였으며 각계 각층들 속에서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핵심 대렬을 양성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어떠한 부문, 어떠한 초소를 막론하고 우리 당 조직이 없는 곳은 없으며 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인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절대적이다.

해방 직후 준비된 공산주의적 핵심 대렬이 미약하였으며 오늘과 같이 대렬이 튼튼히 꾸려지지 못하고 대중 속에서 확고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던 때에도 우리 당은 대중을 쟁취하여 제반 민주 개혁을 수행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였거늘 하물며 당의 력량이 전면적으로 장성 강화된 오늘에 와서 해결하지 못할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우리의 사업 여하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군중들을 당의 주위에 결속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믿어 주며 아량있게 포섭하며 교양 개조하는 당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설사 어제는 몰라서 우리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깨닫고 우리를 지지하며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서슴없이 그들을 믿고 단결하여야 한다.

과거의 낡은 문서를 들추어 사람들을 동요시키거나 불안케 하는 협애한 사업 작풍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폭 넓게 포옹하며 사랑하고 교양하여 다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군중을 믿지 않고는 그들을 교양할 수도 개조할 수도 없으며 또한 우리에게는 교양과 개조를 망각한 무원칙한 융합은 있을 수 없다.

일부 군중들이 비록 현재는 사상적으로 락후하고 사업에 적극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성 있게 교양만 한다면 그들은 조만간에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일단 각성되기만 하면 어떠한 혁명의 시련기에도 반드시 우리를 지지하고 따라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찾아 오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싸움에서 검열하는 원칙을 세워 수 많은 훌륭한 혁명 투사를 육성한 고귀한 작풍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것은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 과정이다. 군중을 교양하고 개조하려면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정력적으로 인내성 있게 사업해야 한다.

레닌은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임무는

곧 락후한 대중을 설복할 줄 알며 그들 가운데서 활동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유치한 〈좌익〉적인 꾸며낸 구호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전집, 31권, 47페지)라고 하였다.

우리는 각계 각층 군중들과 의식적이며 계획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의 복잡하고 예민한 심리 상태와 정서를 료해하며 그들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아파하고 곤난해 하는 문제들을 풀어 줌으로써 그들이 당을 믿고 흉금을 털어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들이 우리 당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우리 당이 참말로 자기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적 선전이나 호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광범한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서 확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군중은 특히 뒤떨어진 군중은 서적이나 연설보다 언제나 직접 자기가 본 것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하여 문제를 더 쉽게 리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을 따라 오고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사명이며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각계 각층 군중들의 모든 활동 모든 생활을 한결같이 보살펴야 하며 그들의 사업 성과에 대하여 응당한 평가를 주어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들을 교양 개조함에 있어서 위력한 수단은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이다. 특히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 선차적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계급적 원쑤들의 반동적 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여 각계 각층 군중들로 하여금 적대 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게 하며 누가 혁명의 원쑤이며 누가 벗인가를 똑똑히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부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놈들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며 원쑤들을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며 혁명 세력을 결속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계 각층 군중들 속에서 미제의 침략적 목적과 남조선 괴뢰 집단의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며 특히 한 가족 한 친척을 남북으로 갈라 놓게 하였으며 지난 전쟁 시기 적지 않은 선량한 인민 대중을 범죄의 길로 몰아 넣은 장본인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들 속에서 우리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혁명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시키며 모든 생활의 번영과 행복은 우리 당에 의해서만, 혁명의 완전한 승리에 의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며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의연히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혁명에서 각 계급 계층이 노는 역할은 각이하다.

군중 가운데는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혁명에 대한 리해, 사상 의식 준비의 차이에 의하여 핵심적인 부분과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핵심적인 부분 이것은 혁명의 골간 부대이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노력과 희생으로써 혁명에 참가하여 그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이들은 가장 철저하게 원쑤를 증오하며 당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말하자면 우리 당과 우리 혁명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다. 우리 당은 이들에게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구성이 복잡한 각계 각층 군중들을 교양 개조하는 것도 혁명의 골간 부대가 튼튼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정치적 각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 우리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골간 부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 그리고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인민군 후방 가족들과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당원들과 특히 지도 간부들이다. 간부는 혁명 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의도를 관철시키며 대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하여 당 정책 실현에로 조직 동원하는 지휘성원이며 따라서 대중은 바로 이 지휘성원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명백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의 협애하며 포용력이 부족한 사업 작풍,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사업 작풍은 각계 각층들과의 사업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 발전에 극히 유해로우며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철저히 극복 개선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 투쟁은 계속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다. 원쑤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 활동을 강화하며 부르죠아 사상을 침투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약화시켜 보려고 발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기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벗어날 출로를 찾으며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며 그들의 주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북반부 지역에 대한 도발 행동을 획책하며 우리의 평화적 건설 사업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원쑤들의 온갖 침해와 파괴로부터 혁명적 민주 기지를 튼튼히 보위함이 없이는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그를 철저히 폭로 분쇄함이 없이는 혁명 군중을 튼튼히 결속할 수 없다.

우리는 계급 투쟁에서 다수를 쟁취하며 소수를 고립시키고 반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소멸하는 당의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며 적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함으로써 원쑤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각계 각층 군중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교양 개조하는 문제는 원쑤들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생활과 사업에서 안일성을 극복하고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지도 간부들이 각계 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면 우리의 혁명 군중이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농업 기계화의 촉진은 현 시기 농촌 경리 발전의 결정적 고리

최 상 벽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완충기의 중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가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 천명하신 당의 농촌 기계화 방침—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 지대에로 기계화를 확대하며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며 대기계와 중 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 립각하여 우선 평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에서는 1~2년 내에, 기타 도들에서는 계단별로 3~4년 내에 실현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당의 농촌 기계화 정책은 인민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며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체적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작성된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 경리가 집단적 대규모 경리로 개조되였으며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 성과가 달성된 유리한 조건들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력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현 조건하에서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당이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알곡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육류, 식용유, 우유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2모작을 적극적으로, 광범히 도입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2모작의 광범한 도입이 이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되는 것은 경지 면적이 극히 제한되여 있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산지대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자연 지리적 조건하에서는 앞으로 경지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경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출로는 오직 2모작을 도입하여 토지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데 있다. 우리가 초보적으로 2모작 면적을 100만 정보만 확장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100만 정보의 새 땅을 얻는 것으로 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알곡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는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력사적으로 먹는 문제에서 고통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다만 좁은 땅에 매여 달려 거기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2모작의 광범한 도입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그것은 기계화의 도입만이 파종, 중경 제초, 수확, 탈곡 등 모든 작업을 짧은 시간 내에 수행케 하여 영농 작업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성을 보장하게 하며 2모작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량 증대되는 로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고리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계화를 함으로써만 농업 협동 조합들을 진정으로 견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만들 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단순히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농촌 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과업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더욱 높은 고지에 올라 서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다.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되는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최신 기술로 장비되여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는 공업과 락후한 기술에 토대하여 완만하게 발전하는 농업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생활 재료 뿐만 아니라 일련의 경공업 원료를 생산하는 농촌 경리를 락후한 기술적 토대 우에 계속 남겨 둔다면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식량과 각종 원료에 대한 경공업의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은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는 것이 농업 발전을 위한 요구로 될 뿐만 아니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로도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은 결국 그들이 어떤 생산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만큼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농민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하여서도 요구된다. 봉건 시대의 생산 도구와 작업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농민들의 의식을 급속히 사회주의적으로 개변시키자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지는 극히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집단화하는 것만으로써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말 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농업을 반드시 기계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하고 있는데 농업을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에 내 세우고 그것을 적극 전개할 데 대한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경제 로선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축

성되였으며 농촌 경리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농촌 경리를 새 기술로 장비함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대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으며 농촌 경리 자체에서도 기계화의 실현에 필요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또한 농촌 기계화를 계단별로 확대하며 현대적 기계화와 중 소기계화를 결합시키는 당의 구체적 방침은 기계화의 속도를 높이며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을 목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그것은 아직은 모든 농기계들을 일시에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발전되지 못한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현 상태와 아울러 포전이 좁고 경사가 심한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이 중 소기계화의 배합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화를 하기 쉽고 소출이 가장 많은 평지대, 그 중에서도 수리화가 가장 많이 된 데로부터 력량을 집중하여 해결하는 당의 방침은 기계화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시키고 최단 기간 내에 농산물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농촌 기계화 정책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발전 및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를 포착하고 그의 해결 방도를 명시한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면서 빠른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금년 상반년 동안에 새로 2,500 여대 (15마력 환산)의 뜨락또르가 공급되였으며 5,000 여대의 련결차를 비롯하여 수 많은 파종기, 중경 제초기, 수확기가 공급되였다. 또한 지방 공업 기업소들도 13만 여대의 각종 중 소 농기계들을 생산 공급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2,500 여명의 뜨락또르 운전수가 새로 양성되였으며 4,000 여명이 현재 양성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89개 농기계 작업소들에는 8,800대(15마력 환산)의 뜨락또르와 수 많은 자동차, 5,300대의 각종 뿌라우, 1만 4,000 대의 각종 정지기, 1,280대의 파종기를 비롯한 선진 농기계들과 1만 2,000 여명의 기술 일'군들이 일하고 있다.

금년 6월 말을 작년 말과 대비할 때 매 농업 협동 조합들에 차례지는 뜨락또르의 평균 장성 정형은 아래와 같다:

	1959년 12월말	1960년 6월 말	장성비률	비 고 (조합총수)
공화국적으로	1.7(대)	2.4(대)	140(%)	3,731
그중황해남도	3 7	6 3	170	388
평안남도	2.3	3.9	170	578

기계화 작업의 범위와 종류도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금년 상반년 동안에 농기계 작업소들의 연경 총 면적은 작년 동기 실적의 2.6배에 달하는 271만 7,000 여정보에 달하였으며 기경 총 면적은 62만 8,700 여정보로서 작년 동기의 약 1 4배, 퇴비를 비롯한 농촌 물동의 수송량은 작년 동기의 9.5배인 2천 784만 2,000톤 키로메터에 달하였다.

기계에 의한 밭 후치질 8,800정보를 비롯하여 일련의 작업이 새로 기계화되였으며 가장 힘든 작업의 하나인 물논 써레질은 전년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는 30만 정보가 기계화되였다.

특히 금년도 기계화의 중심 지대들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기계화 작업량이 각각 2.6배, 3.2배로 확장되였다.

이 기간에 농업 협동 조합들도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8만 정보의 토지 정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종 중 소 기계화를 광범히 도입하였다.

* *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급속한 발전 단계에 들어 선 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그것은 벌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논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농촌 기계화의 촉진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동맹을 가일층 공고히 하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로동 계급의 적극적 지원하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로동 계급은 방대한 량의 각종 현대적 농기계들을 생산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439개의 기업소들이 농업 협동 조합 총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70개의 조합을 담당 지원하고 있다. 평양 정밀 기계 공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소들은 유휴 자재를 리용하여 각종 농기구들과 부속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간부들과 기술 일'군들이 담당 조합에 나가 기계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며 농기계들을 수리하여 줌으로써 기계의 리용률을 일층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농민 대중들 속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실정에 알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기에 힘쓰고 있다.

농촌에 파견된 유일한 로동 계급의 집단이며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은 농업 협동 조합들과의 련계를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새 환경에 적응하게 임경소를 작업소로 개편하고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 작업 분조를 고착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조합에 배치된 기계화 일'군들은 임대의 방법으로 작업하던 낡은 사업 방식을 버리고 농업 협동 조합들과 함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에 기계화 작업 비률을 75%까지 높일 것을 계획한 황해남도 내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여 상반년에 이미 그 비률을 61% 이상으로 제고시켰으며 뜨락또르 1대당(15마력 환산) 작업량을 1.5배 이상으로 높이였다.

이렇게 농촌 기계화의 촉진 과정에서 로동 계급은 자기의 령도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지원에 고무된 농민들은 오직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로동 계급의 적극적 방조에 의하여서만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깊이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농촌 기계화의 촉진은 우리 나라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화는 농민들이 일을 헐하게 하고 빨리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축력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경 기타 집약 농법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

며 농산 작업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기성 보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금년도에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과 축력이 부족한 조건하에서도 춘경 파종과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당면한 밀 보리 탈곡과 후작 파종 및 김매기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 등 농촌 경리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들은 기계화의 적극적 추진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황해북도 평산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이 서흥군 화곡 농업 협동 조합에서 기계화 작업 비률을 90%까지 제고하여 종전에 정당 평균 800키로그람밖에 내지 못하던 밀을 일약 평균 3.8톤, 최고 6톤까지 수확하게 한 것은 기계화가 농업 생산력 발전에서 노는 거대한 작용을 뚜렷이 증시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는 작업에서 기동성과 계획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만큼 농업 협동 조합들로 하여금 작물 배치, 작업 조직, 로력 조직 등을 새 환경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개편케 함으로써도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농촌 기계화의 촉진은 전반적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금년 상반년 기간에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일을 보다 헐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경, 제초, 파종, 운반 작업 등 모든 부문에서 허다한 새 창안들을 제기하고 도입하였다. 이 기간에 그들이 새로운 농기계의 제작 및 그의 개조를 제기한 것만 하여도 근 80건에 달한다. 특히 중화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이 창안 제작한 《고성능 맥류 탈곡기》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현재 리용되고 있는 동력 탈곡기에 비하여 10배나 더 높은 능률을 내고 있다. 지금 이것은 전국 각지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농촌 기계화의 촉진은 농촌 경리 부문 일'군들 속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기계화의 촉진은 또한 농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공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혁신을 자극하여 맥류 수확기, 중경 제초기, 종합 탈곡기를 비롯한 10 여종의 새 기계를 만들어내게 하였다.

중공업 위원회 산하 기계 공업 부문 기업소들에서는 금년에 들어 와 불과 4~5개월 간에 약 1,400건에 달하는 창의 고안과 합리화안을 완성하여 42종에 달하는 26만 7,000개의 각종 지구와 공구를 제작하였다. 기술 혁신 운동의 광범한 전개는 농기계의 생산량을 매월 계통적으로 장성시켰는바 2.4 분기에는 1.4 분기에 비하여 1.8배로, 상반년 기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실로 48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특히 기양 기계 공장 로동자들이 제작한 38축 자동 보링그는 뜨락또르 기관 본체의 량측 구멍 38개를 일시에 뚫어 작업 시간을 종전보다 14분의 1로 단축시킴으로써 뜨락또르 생산에서 큰 전환을 일으켰다.

지방 공업 부문 로동자들도 농기계 생산 기술을 부단히 제고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1.2~1.5배로 높였으며 농기계 생산량을 전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시켰다.

이 모든 것은 강력한 공업에 토대하여 전개되고 있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동시에 기술 혁신을 추동함으로써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촌 기계화의 촉진은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작용을 놀고 있다.

농촌에 현대적 기술이 들어 가고 농민들이 기계로 일하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농민들을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있다.

《기계의 세상이다. 농사일이 참 헐하게 되였다.》, 《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말은 이미 우리 농민들이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락후한 생산 도구와 작업 방식을 버렸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번영 륭성하는 우리 나라 농촌의 새로운 기상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각종 현대적 농기계들이 대대적으로 도입됨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생활에서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집단주의 사상이 급속히 배양되고 있다.

또한 기계에 접촉하게 되여 기술 문화 수준이 제고되고, 기계로 일하게 됨에 따라 자연과의 투쟁에서 더욱 강력하여진 농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소극성, 보수성, 신비성 등 낡은 사상 잔재들이 청산되고 있는 반면에 노력하기만 한다면 농촌 경리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심과 적극성이 강화되고 있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도시와 농촌, 전국의 모든 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사업을 더 잘 조직하고 전개력 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농촌 경리의 기계화란 이 위대한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대로 보다 빨리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농기계 작업소의 역할을 제고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라》는 완충기의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락또르 및 농기계의 가동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기계화의 선구자들인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의식을 제고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기계의 가동률 제고가 곧 농업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길이란 것을 진실로 자각케 함으로써 기계에 대한 기술 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일'군의 대렬을 확대하며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 전습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기계의 수리 체계를 확립하고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면서 수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기업 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기업소 내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일'군들에 대한 보수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하며 그들이 조합원들과 꼭 같은 책임성을 가지고 작업에 참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

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은 밭을 갈아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더 세밀하게 갈아야 하며 퇴비도 제때에 나르고 곡식도 한 알의 손실이 없이 실어 들여야 하며 탈곡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한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련결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에서 량적 증대와 함께 그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계를 선행시키며 시제품을 만든 후에는 반드시 광범한 농민 대중 속에서 합평을 조직하여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대량 생산하되 아직 기술 수준이 어리고 설비가 불비한 조건을 고려하여 생산을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전문화하며 자재의 질을 보장하고 표준 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 가장 큰 리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이다. 그러므로 매개 협동 조합들에서는 기계화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있도록 토지 정리를 비롯한 기계화의 조건을 더잘 갖추는 동시에 각종 중소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이것은 실로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이다. 우리는 농업 협동 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시, 군, 도,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근거하여 중심을 튼튼히 틀어 쥐고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이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발전에서 도 경제 위원회의 역할

김　상　학

I

경제 관리의 형태와 방법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경제 관리의 형태는 나라의 생산력 발전과 간부의 준비 상태, 인민 경제 제 부문의 가일층의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 과업들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 발전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비약과 변혁의 시기에 처해 있다.

이미 력사적으로 물려 받았던 공업 생산력의 락후성과 편파성은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가 확고히 축성되였다.

최근 년간 공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농업 생산의 거대한 앙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59년 공업 총 생산액은 1946년도에 비하여 실로 19배에 달하였으며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새로운 공업 부문들이 광범히 창설되였다. 구 공업 중심지들에서는 그의 구조상 변동이 일어났고 국내 제 지역에 새로운 공업 중심지들이 형성되였으며 전국 각지에 지방 공업 기지가 창설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종전의 공업 관리 형태로써는 전국 각지에 광범히 포치되여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는 공업을 정확히 관리하고 경제에 대한 정치적 지도와 구체적인 경제 조직 사업으로 앙양된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의를 계속 견지케 하며 광범한 집체적 협의제에 의거하여 관리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과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게 되였다.

또한 금년도 완충기의 중심 과업인 인민 소비품 생산의 더욱 급속한 증대를 보장하며 특히 명년도부터 개시될 새로운 전망 계획의 수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 사업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그에 적응하는 공업 관리 기구의 개편이 요구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공업 관리에 대한 중앙 집권적 지도와 지방적 창발성을 더욱 합리적으로 결합하며 중앙 국가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각급 당 단체들의 당적 통제를 더욱 긴밀히 결합하며 경제 관리에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는 공업 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창설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였다.

이것은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생산력 발전에서 거대한 앙양과 비약이 일어나는 시기에 고조된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의에 비하여 경제 관리 일'군들의 조직 지도 수준이 뒤떨어지는 경

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금년초에 중앙의 공업 관계 성들을 통합하여 중공업 및 경공업 위원회를 창설하고 도 당 단체들로 하여금 경제 관리에 대한 통제와 지도를 더욱 강화케 하였으며 도 경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 경제 위원회는 중앙 공업에 대한 통제와 지도 기능을 수행하면서, 종전에 도 및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들의 관리하에 있던 지방 공업 및 수산업 기업소들과 림업성 산하 기업소들을 이관 받아 직접 관리하게 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직된 도 경제 위원회는 그의 성격과 조직 원칙상에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도 경제 위원회는 내각 직속의 지방 경제 관리 기관이다.

도 경제 위원회는 도 인민 회의 또는 도 인민 위원회의 관하에 있는 지방 경제 관리 기구가 아니라 도 인민 위원회와 병행하여 내각에 직속되여 있는, 독자성을 가진 경제 관리 기관이다. 그러나 도 경제 위원회는 그의 제 1차적 표식이 지역별로 조직된 것이며 지방 정권 기관들과의 아주 긴밀한 련계하에 있는 지방 경제 관리 기관이다.

둘째로,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레닌적 원칙의 철저한 관철과 그의 가일층의 개선을 위한 우리 당의 중요한 조치로 된다.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의 강화는 시, 군영 기업소들을 단일한 도적 경제 관리 기관에 직속시키며 내각에 직속하는 전문적 경제 관리 기관의 전체 지방 공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표현된다. 또한 그것은 경제 관리에서 지방 당 단체들의 당적 통제의 강화에 의하여 당의 경제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하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지방 공업에서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이와 동시에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중앙 공업에 대한 지방 당 단체 및 지방 경제 관리 기관의 통제 지도 기능의 강화, 경제 관리에서 집체적 협의제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발양시킨다.

세째로,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경제 관리에서 행정 기술적 지도와 정치적, 당적 지도와의 결합을 강화하며 유일 관리제와 집체적 협의제와의 결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종전의 성 및 관리국들의 운영 방식과는 달리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각급 당 단체들의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에서 유일 관리제를 전제로 하면서 계획 작성과 사업 방침 토의에서 광범한 집체적 협의제를 법적 규범으로써 예견하고 있다.

네째로,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종전에 중앙 공업 관리 체계와 지방 공업 관리 체계가 병행하여 존재하던 체계로부터 그들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체계에로의 점차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경제 관리 기구 편성에서 생산적 표식과 지역적 표식의 합리적 배합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의 중앙 공업은 생산적 표식에 의하여 조직된 중공업 및 경공업 위원회의 보다 전문화된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동시에 도 경제 위원회 즉 지역적 표식에 의한 관리 기관을 통하여 지방 경제 발전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되였으며 중앙 공업 발전에서 지방적 창발성의 발양과 지방 당 단체들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와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은 전문화된 지역적 경제 관리 기관인 도 경제 위원회를 통하여 한편에 있어서 지역적 표식에 의한 관리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생산적 표식에 의하여 보다 정비되고 전문화된 관리 체계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였다.

끝으로,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본 경제 지구의 설정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도적 단위들에 대하여 경제-행정 관리 지구의 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행정 구역, 또는 경제-행정 관리 지구로서의 도가 곧 기본 경제 지구로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래 경제-행정 관리 지구는 경제 관리의 지역적 단위이며 기본 경제 지구는 인민 경제 계획화의 지역적 단위이다. 즉 경제-행정 관리 지구는 경제의 국가적 관리와 계획적 지도의 지역적 기초로서 복무한다면 기본 경제 지구는 인민 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균형적 발전을 지역적으로 계획화하기 위한 지역적 기초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도는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의하여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및 균형적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에서 기본 경제 지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2

도 경제 위원회는 창설된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공업 관리 사업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우선 중앙 공업에 대한 도 경제 위원회의 통제와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 공업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중앙 공업 관리 운영 사업에서의 중앙 경제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지방 당 기관들의 당적 통제와의 결합, 그리고 또 중앙 공업의 경제 관리 사업에 대한 도 경제 위원회의 지방적, 현지적인 일상적 통제와 지도—이것은 공업 관리에서 당 경제 정책의 정확한 관철과 정치 사업의 선행을 보장하며 지도를 생산 현지에 접근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케 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 공업 기업소의 생산 및 경제 활동에서 당 정책이 보다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으며 기관 본위주의적인 경향이 현저하게 시정되고 기업 관리와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 중요한 결함들이 제때에 적발 시정되고 있다.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지방 공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도 경제 위원회는 전문적인 경제 관리 기관으로서 지방 공업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줄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현 시기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기본적 문제들—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의 기술적 혁신과 기술 장비의 개선 강화, 계획화와 계산 체계의 확립, 독립 채산제의 강화 등 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미 경험이 실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도 경제 위원회는 관리의 전문화와 집중에 의하여 종전보다 적은 수의 관리 일'군들로써 경제 관리 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하며 기술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리용과 도내 지방 공업에서의 우수한 경험의 일반화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지방 공업이 도 경제 위원회의 직접적 관리하에 집중된 결과 종전에 도내 지방 공업 운영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던 일부 지방 본위주의적 경향은 현저하게 퇴치되기 시작하였다. 도 경제 위원회는 조직된 후 얼마 안 되는 동안에 각 시, 군(구역)에 배치된 기업소들의 업종별 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매 기업소들의 생산물 품종의 선택과 그 배치에서 종전의 불합리한 점들을 적지 않게 시정하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보다 합리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도 경제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는 종전에 그것들 사이에 있었던 일부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을 현저히 퇴치하고 지방 공업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중앙 공업에서 달성된 성과와 경험을 지방 공업에 신속히 보급시키며 중앙 공업에서 나오는 폐잔물들을 지방 공업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케 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도 경제 위원회는 공업 관리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보장된 조건에서 한 손에는 중앙 공업을, 다른 손에는 지방 공업을 틀어 쥐고 생산 내부 예비와 지방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공업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도 경제 위원회의 조직은 도,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들로 하여금 지방 공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오늘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발전과 문화 농촌 건설에 그의 지도 력량을 더욱더 집중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도 경제 위원회가 현 시기에 지방 경제에 대하여서는 물론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서 경제의 종합적 및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3

오늘 우리 앞에는 조직 사업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일으켜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서고 있다.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첫째로 우선 청산리 당 단체에 대한 지도 정신에 립각하여 당 및 경제 지도 방법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둘째로 기업소 지도 일'군들의 사업 지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세째로 이미 발족한 도 경제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 그것이다.

이러한 조직 사업은 인민 생활 향상에 력량을 집중하며, 특히는 새 전망 계획의 실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도 경제 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것은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된 경제 조직 사업 분야에서 기본적 문제의 하나로 된다.

오늘 도 경제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며 그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도 경제 위원회 자체의 사업 체계를 정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경제 위원회가 조직된지 얼마 안 되는 현 조건에서 지방 공업에 대한 직접적 관리 체계와 중앙 공업에 대한 통제 지도 체계에서 제도와 질서를 옳게 확립하는 것은 당면한 중요 과업의 하나이다.

특히 매개 도에 망라된 수백 개소의 각종 중 소 규모 공장들 중에는 종전에 아직 경제 운영 사업에서 질서와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채 이관된 것이 적지 않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각 시, 군(구역)에 분산된 기업소들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행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 경제 위원회의 사업 강화를 위하여 당면하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지도를 생산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본래 지역적 관리 체계의 우월성은 바로 중요하게 지도를 생산 현지에 접근시키는 그것에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도 경제 위원회는 그가 조직된 그것만으로써 이와 같은 우월성을 자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도 경제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중앙 공업에 대한 통제 지도 사업이 많지 않은 담당 참사들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하며 다수의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각 시, 군(구역)에 산재해 있는 조건에서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현지 지도 방법을 강구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지 않는다면 지도가 생산 현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도 경제 위원회가 조직된 후 나타나고 있는 편향은 일부 도들과 적지 않은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들이 지방 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방조 사업에서 물러 서려는 것이다.

지방 공업은 어디까지나 지방 원료 원천에 의거해야 하며 중요하게는 지방적 수요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방 공업에서 생산되여야 할 제품의 수요 타산은 물론, 농산물과 각종 자연적 야생 원료로써 지방 원료 기지를 조성하며 그의 원만한 수매를 조직하는 사업은 지방 당 단체들과 지방 정권 기관들의 정치적 및 행정-경제적인 적극적 방조 없이는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현 시기 우리의 지방 공업은 지방 경제의 극히 중요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 경제 발전의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지방 공업의 생산물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의 수요에 충당되며 지방 공업의 재정 상태는 해당한 지방 정권 기관의 재정과 직접 련결되여 있다.

때문에 일부 지방 인민 위원회들에서 나타나는 지방 공업에 대한 소극적 태

도 또는 관심성의 약화를 시급히 시정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도 경제 위원회가 지방 인민 위원회와의 협조와 련계를 긴밀히 맺도록 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능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도 경제 위원회의 사업 강화와 관련하여 일부 있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편향은 도 경제 위원회들이 자기의 직접적 책임하에 있는 지방 공업과 수산 및 림산 부문에 대한 관리 사업에만 몰두하고 중앙 공업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 당 단체들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지방 공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도 경제 위원회들이 중앙 공업에 대한 통제 지도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제때에 그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도 경제 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일상적으로 돌리며 해당한 조직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오늘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특히는 지방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도 경제 위원회들은 그 앞에 부과된 과업을 전망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도 경제 위원회는 지방 인민 위원회와의 련계 밑에 해당 지방 경제 발전에 관한 각종 조사 사업을 조직 진행해야 하며 우선 지방 공업의 정비 강화를 위해서는 도적 의의를 가지는 지방 공업 기업소들과 시, 군적 의의를 가지는 것과를 옳게 구분하며 도 경제 발전의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매개 시, 군들의 경제 발전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기업소의 생산 조직과 그의 배치를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도 경제 위원회는 공업 관리의 통일적 지도를 담당하는 경제 관리 기관으로서 지방 경제의 종합적 발전에 더욱 전망성 있는 고려를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 경제 위원회는 앞으로 그가 우리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담당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여 자체의 사업 체계를 더욱 정비 강화하며 그의 조직 지도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제 관리 사업에서 최대의 창발성과 대담성을 가지고 자기 앞에 부과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남 춘 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의 하나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한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인 상공업자들을 순조롭게 사회주의 길로 인도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 농업 집단화와 함께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 당은 고귀한 경험과 리론적 결론들을 얻었다. 이 경험과 리론적 결론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변혁하는 과정, 형태, 방법은 각이한 나라에서 동일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정, 형태, 방법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공업자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상공업자들까지도 협동 조합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한 데 있다. 이 특성은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계급적 력량 관계와 사회주의의 전 세계적 지위의 변동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청소한 계급이나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았고 그와의 투쟁에서 단련되였으며 자기 주위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력량을 집결시켰다. 1930년대부터 로동 계급의 선두에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서 있었다. 8.15 해방 후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와 성원은 로동 계급의 력량을 일층 강화하였다.

민족 부르죠아지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무력하였다. 그는 일제 통치의 전 기간 일본 독점 자본가들과 예속 자본가들의 가중되는 압박으로 말미암아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었다. 민족 부르죠아지는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정당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 민족 부르죠아지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반제국주의적 기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투쟁에서 항상 동요하였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튼튼히 할 수 없었다. 민족 부르죠아지는 8. 15 해방 후 국제 자본과의 련계를 상실하였다.

8.15 해방 후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로 말미암아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족 부르죠아지는 로동 계급의 령도를 접수하고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수행에 참가하였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길을

따라 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중소 상공업자들과의 정치적 동맹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경리를 리용 제한하며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그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일정한 조건에서 소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부농, 도시 자본주의 상공업자들도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과도기 첫 시기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우세와 지배를 보장하면서 개인 상공업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민주 개혁이 실시된 직후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에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소상품 경리 형태가 지배하고 있었다.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 《매일 매시 대량적으로 자본주의를 산생하고 있는》 소상품 경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만큼 자본이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에 개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혹심한 식민지 편파성을 띠고 있었던 사정은 자본주의 요소를 광범히 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 당은 아직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장성에 유리하게 개인 상공업을 리용하였다. 당시 개인 상공업은 국영 경제의 보조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개인 상공업은 그의 본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자동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 것만큼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장성에 유리하게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여야 하였다.

우리 당은 과도기 첫 시기부터 개인 상공업을 리용하면서 그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였다.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법령과 기타 제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였다. 로동 법령에 의하여 자본가가 고용한 로동자들의 로동 시간이 제한되였고 로임, 로동 보호가 보장되였다. 이 외에 조세 체계, 가격 체계, 수매 체계를 통하여 그들의 착취를 제한하였고 기업 허가제 및 기업 등록제를 통하여 그들이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개인 상공업에 대한 제한의 범위, 방도는 경제 발전의 매 시기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과도기 첫 시기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개인 상공업의 업종을 제시하고 이 업종에서 기업하는 상공업자들에게는 세금, 가격 등 경제적 공간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개인 상공업의 활동 분야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 분야로 개인 상공업자들을 인내성 있게 인도하는 사업이 없이는 그들을 리용할 수 없고, 그들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제한은 행정적 조치만으로써는 원만히 보장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자기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개인 상공업을 경쟁의 방법으로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자본주의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전면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광범히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는 장기간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로 령락된 수공업자들을 중간 착취에서 해방시키며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공업자, 령세한 수산업자들로써 조직된 각종 협동 조합들을 발전시켰다. 이 결과에 1949년 12월 1일 현재로 개인 상공업자 총수의 11%가 생산 및 수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되였다(이 외에 개인 상공업자 총수의 11.5%는 로동자, 사무원, 기타로 전활되였다).

당과 정부는 수공업자들로써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에 거대한 재정적 원조를 주었고 그의 조직-경제적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에 발족한 생산 협동 조합은 1950년 전쟁 직전까지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이 기간에 조합수는 24배, 조합원 수는 120배로 각각 장성하였고 생산량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1948년 말에 생산 협동 조합의 업종이 44종이였는데 1949년 말에는 64종으로 증가하였다. 창설 당시에는 독자적인 지도 체계를 가지지 못하였고 소비 협동 조합 체계의 한 구성 부분이였던 생산 협동 조합은 1950년 3월부터 독자적인 지도 체계를 가지게 되였다.

령세한 수산업자들로 조직된 수산 협동 조합은 1948년 4월에 발족하였는바 1950년 6월 말에 이르러 조합수는 창설 당시에 비하여 149%, 조합원 수는 145%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생산 협동 조합은 농민을 포함한 소생산자들을 사회주의 길로 인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영 공업을 보충하며 사회주의 공업의 우세와 지배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1949년 공업 총 생산액에서 협동 경리의 비중은 5.2%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달성되였다. 수공업자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는 초기에 우리가 당한 애로와 난관은 협동화의 경험이 없었고 게다가 농촌에서는 개인농 경리가 지배하였고 도시에서는 자본주의 상공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수공업자들을 자본가들의 중간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며 조직된 협동 조합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는 것은 힘든 일이였다.

당과 정부는 생산 협동 조합들에 원료를 공급하여 주었고 그들의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여 주었다. 이와 동시에 협동 조합의 내부 질서를 강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교양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전쟁 전 3년 간의 평화적 건설 과정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였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되고 인민생활이 령락되였던 조건에서 당 앞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당 제 3차 전원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현실적 조건에 근거하여 모든 물자와 심지어 락후한 생산 수단들도 다 동원 리용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전시 경제의 요구에 적응하게 개인 상공업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전시에 있어서도 역시 개인 상공업의 리용은 그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제한과 긴밀히 련결되였다.

전시에 적의 만행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의 혹심한 파괴는 상품 폰드의 감소, 물가의 등귀를 가져 왔고, 시장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조절적 역할을 약화시켰다. 개인 상공업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모리와 투기를 일삼았다. 도시, 공업이 파괴된 조건에서 개인 상공업자들은 부농들과 함께 빈농민들의 곤난한 경제적 형편에 편승하여 그들을 예속적 조건으로 착취하는 데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의 복구와 그의 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취하면서 농촌 사업에 총 력량을 집중하였다. 당과 정부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원조를 줌과 동시에 빈농민들에 대한 착취 계급들의 고리대적 착취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전시에 개인 상공업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전시에 조성된 경제 형편과 계급적 제 관계, 그리고 전시 경제의 특수한 요구에 적응하게 개인 상공업을 광범히 리용하는 한편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은 수공업자들을 협동 조합에 인입하였다.

우리 당은 일시적 후퇴 시기에 적의 만행으로 인하여 파괴되였던 기존 생산 협동 조합의 복구와 그의 조직-경제적 강화에 기초하여 도시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를 확대하였다.

전시에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본 대상은 수공업자였다. 그런데 전시에 생산 협동 조합에는 수공업자들 뿐만 아니라 원쑤의 만행으로 인하여 일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은 로동자, 사무원, 후방 가족, 영예 군인들도 인입되였다. 이리하여 전시에 생산 협동 조합에는 개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망라되게 되였다. 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이러한 협동 조합들은 전후에 지방 국영 공업으로 개편될 때까지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체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전시에 일부 자본주의 상공업자들도 조합에 망라되였다. 그것은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자본주의 상공업자들이 자립적으로 자기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정과 그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과 자금을 국가가 리용할 필요성과 관련되여 있었다. 그러나 당은 당시 생산 협동 조합들이 조직-경제적으로 충분히 공고화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조합 내에서 자본주의 상공업자의 수가 조합원 총수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전쟁의 불'길 속에서 일부

자본주의 상공업자들은 협동화의 길을 통하여 사회주의 근로자로 전화되였다.

이와 같이 장성 강화된 생산 협동 조합은 중첩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인민 경제의 발전과 개인 상공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1949년 공업 총 생산액에서 협동 경리의 비중이 5.2%였는데 1951년에는 11.4%, 1952년에는 12%로 각각 제고되였다.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는 전후 시기, 특히 농촌에서 협동화 운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이후 대중적 현상으로 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과정에서 개인 상공업은 적지 않게 발전하였다. 당과 정부는 계속 국가와 인민 생활에 유익한 분야에서 개인 상공업자들이 활동하도록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그러나 개인 상공업은 전시에 입은 피해를 급속히 가실 수 없었고 그들의 경제적 토대는 빈약하였다. 또한 그들의 활동 분야도 정미소, 야장'간, 소규모의 식료품 가공 등에 국한되였다. 그들의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급속히 강화 발전됨에 따라서 개인 상공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되여 갔다. 이전에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분야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던 개인 상공업은 사회주의 공업과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 그리고 농업의 협동화에 따라 점차 필요 없는 것으로, 지어는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화되였다. 이것은 중요하게 농업의 협동화와 관련되였다. 왜냐 하면 개인 상공업의 원료와 상품 원천은 그의 많은 부분이 지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농업 협동화 운동이 대중적 단계를 거쳐 완성 단계에 들어 서게 되고 그리하여 농산물의 실현 단계가 사회주의 재생산 과정의 한 단계로 발전되여 간 것과 관련하여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절박한 문제로 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조합을 계속 복구하며 조합원의 대렬을 정비하고 조합의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수정 및 보충하였고 지도 기관 선거 사업, 재정 토대의 공고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의 결과 개인 경리에 비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이 더욱 발휘되게 되였고 개인 상공업자들이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대중적으로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급속히 전개된 결과로 1956년 말에 와서 도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행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공업에서 소상품 경제 형태의 비중은 0.7%, 자본주의 경제 형태의 비중은 1.3%에 불과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수공업에 비하여 자본주의 기업의 개조는 뒤떨어져 있었다. 한편 이 시기 소비 상품 류통에서 개인 상업의 비중은 12.7%였다. 이것은 개인 공업에 비하여 개인 상업의 개조가 뒤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실천에서 얻은 결론의 하나는 자본주의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개인 상업의 개조가 비교적 힘들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기초하여 개인 상공업에 대한 허가 및 단속 규정을 재검토하는 기초 우에 국가 제품과 그를 원료로 하는 가공 제품을 유일한 국정 소매 가격에 의하여 판매케 하였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량곡 시장에 대한 국가 독점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군중적 증오를 환기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며 그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개인 상공업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면서 그들을 사회주의 길로 인도하였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1957년 1월 24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과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김 일성 동지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자연 발생성에 방임되여 있는 편향을 지적하고 개조 사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은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1956년 말 1957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전개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1958년 8월에 완성되였다.

전후 시기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은 다음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53년 12월 1일 현재	1954년 12월 1일 현재	1955년 12월 1일 현재	1956년 12월 1일 현재	1957년 12월 1일 현재	1958년 12월 1일 현재
수공업자, 기업가 및 상인 총수 (개조된 부분과 개조되지 않은 부분의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이미 개조된 수공업자, 기업가 및 상인	33.7	39.5	59.4	62.7	77.2	100
그 중 생산 및 수산 협동 조합원	16.7	18.7	36.8	39.8	54.1	76.6
로동자, 사무원, 기타	17.0	20.8	22.6	22.9	23.1	23.4
아직 개조되지 않은 수공업자, 기업가 및 상인	66.3	60.5	40.6	37.3	22.8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상공업, 그 중에서도 특히는 자본주의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평화적으로 수행되였다는 것은 결코 개조 과정에서 아무러한 난관도 계급 투쟁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개조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동요, 혁명 파업에 대한 태공을 극복하여야 하였는바 이것은 심각한 계급 투쟁이였다. 다만 계급 투쟁의 방법과 형태가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상응하게 변동되였을 따름이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전개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내용, 그의 특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개조의 형태와 방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과도기 경제의 구체적 특성을 심중히 타산하고 수공업자들과 자본가들을 동일한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하였다.

수공업자들과 자본가들을 동일한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자원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그들의 경제적 형편과 의식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상 그에 적합한 구체적 대책들—협동 조합의 다양한 형태와 협동화의 각종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상공업자들로써 조직된 협동 조합의 형태는 이미 제 3 차 당 대회의 결정에 명시되였고 1957년 9월 20일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며 조합원들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일층 구체화되였다. 우리 당은 생산 협동 조합의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다.

협동 경리의 제 1 형태는 극히 령세한 수공업자들을 초보적으로 망라한 생산 협동반이며 제 2 형태는 수공업자들과 중소 상공업자들의 생산 수단 및 자금을 통합하여 공동 경리를 운영하되 로동에 의한 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사적 소유로 남아 있는 출자 몫에 대해서도 분배를 실시하는 반 사회주의적 경리이며 제 3 형태는 생산 수단과 자금이 전적으로 조합의 공동 소유로 되며 오직 로동에 의하여서만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1959년 10월에 전체 생산 협동 조합 중에서 제 1 형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 2 형태는 38%, 제 3 형태는 62%를 각각 차지하였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실천적 경험은 이 세 가지 형태가 개인 상공업자들로 하여금 협동 경리를 용이하게 접수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을 가장 순조롭게 사회주의 경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산 협동 조합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조합에 가입한 개인 상공업자, 특히는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였다.

당은 개인 상공업자들의 생산 수단을 수탈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그를 매상하는 방법으로 점차 협동적 소유로 전화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의 사회주의적 사회화에 있어서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의 하나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소유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는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이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방도는 다양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은 일정한 조건에서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매상하여 그를 협동적 소유로 전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 민족 자본은 취약하며 그의 생산 수단은 많지 못한 고용 로동과 결합되여 있었고 소유자 자신이 적지 않은 경우에 생산 로동에 참가하였다. 전시에 적의 만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자본가들이 부유한 수공업자와 같은 처지로 되였다. 이리하여 1957년 5월에 공화국 북반부의 자본주의 공업의 기업가 1인당 고용 로동자 수는 평균 1.4명이였고 5명 이상의 고용 로동자를 가진 기업은 전

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 기업 중 5마력 정도의 동력을 가진 기업소 수는 약 75%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이 매상되여 소생산자들의 생산 수단과 함께 협동적 소유로 전화된 근거는 바로 이 자본의 취약성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 당은 개인 공업과 함께 개인 상업도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우리 당은 개인 상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생산-판매 협동 조합이라는 형태를 리용하였다.

생산-판매 협동 조합에는 제 1 형태와 제 2 형태가 있었는바 그의 내부 조직은 생산 협동 조합의 제 1 형태 및 제 2 형태와 류사하다. 생산-판매 협동 조합은 공업 생산과 상업 활동을 겸하는 조합으로서 상인을 점차적으로 생산적 근로자로 개조하는 데 적합한 형태였다. 생산-판매 협동 조합이 처음 조직되였을 때에는 생산의 비중이 낮았고 생산이 간단한 가공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생산-판매 협동 조합에서 생산의 비중이 점차 제고되였고 생산 공정이 발전됨에 따라 그것은 결국 생산 협동 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생산-판매 협동 조합이 생산 협동 조합으로 나가는 과도적 형태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상인들을 생산-판매 협동 조합이라는 과도적 형태를 통하여 생산 협동 조합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들을 생산적 근로자로 전화시키는 창조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다.

* *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같이 경제 형태의 개조일 뿐만 아니라 상공업자들의 사상 의식의 개조,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 생산 협동 조합은 소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상공업자들까지 사회주의 길로 인도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 조합 내부에는 두 가지 사'적 소유—소생산자들의 소규모적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단합되여 협동적 소유로 전화되였다. 또한 협동 조합을 통하여 두 계급—소생산자와 자본가—이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생산 협동 조합은 소생산자들만으로써 조직된 협동 조합과는 다른 일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분배 관계에서와 함께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의 각이한 준비 정도에서 표현되였다. 협동 조합 내부에 다양한 계층이 망라된 조건에서 조합원들의 사상 문제 해결의 방도, 조합원들 속에서 사상 개조의 템포가 다양하게 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한 지도를 등한히 하는 경향을 비판 시정함과 동시에 생산 협동 조합에 망라된 개인 상공업자들의 준비 정도에 적응하게 각종 교양망, 강연회, 좌담회, 각종 출판물 등 다양한 교양 수단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사상 교양에 힘써 왔다. 토대의 변화에 상응하게 우리 인민들의 정신 생활을 개변하기 위하여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로동과 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조합원 대중을 교양하여 왔다. 당의 정확한 교양 대책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이 개변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근로자로서의 풍모를 갖춰 가고 있다.

조합원들의 사상 문제 해결은 장기간의 인내성을 요하는 사업이며 또한 조합원들의 구성상 특성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사상 개조의 템포가 동일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만족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높은 단계로 전진하면 할수록 조합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필요성은 절실하게 나선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 협동 조합의 기술적 개조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사상 의식을 철저히 개변시킬 수 없고 그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지난 시기 협동 조합의 기술적 토대는 현저히 개선되였다. 그러나 아직 생산 협동 조합의 기술적 토대는 매우 빈약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 상공업자들의 경제적 토대가 극도로 취약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기술적 개조 도상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협동 조합들의 재정적 토대가 공고히 되였고 기계 제작 공업이 발전되였으며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이 전개된 결과에 생산 협동 조합의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 우리 당은 조합의 기술적 개조를 지도함에 있어서 우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소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현대적인 기계화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합의 기술적 개조는 종업원들의 기술-문화 수준의 제고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원대한 전망을 가지고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생산 협동 조합들은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협업의 체계로부터 기계 기술에 기초한 협업의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여 가고 있다. 앞으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촉진됨에 따라서 생산 협동 조합의 기술적 개조는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은 의심할 것 없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조합원들의 열성에 의하여 생산 협동 조합의 생산은 장성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1959년 말에 와서 생산 협동 조합의 생산액은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22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1954년으로부터 1959년 6월에 이르는 기간에 조합원들의 월 실질 수입은 3배로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개인 상공업자들은 이미 확고하게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섰다. 개인 상공업자들로써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들은 지방 산업과 함께 지방 공업 체계를 형성하고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각종 협동 조합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방법으로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우리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 어려운 과업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확성과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가 현명하였다는 것을 실증한다.

예속과 략탈의 도구

김 현

미제의 괴수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아이젠하워가 피묻은 발을 남조선에 들여 놓았을 때, 허 정 일당과 《민주당》 지배층은 상전에게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 및 경제 원조의 증액》을 애걸 복걸하여 나섰다. 허 정 일당과 《민주당》 지배층이 략탈적인 《원조》를 구걸하는 소행은 그들이 미제의 수급 사환'군이며 리 승만 도배에 못지 않는 매국노라는 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원조》의 본질

미제의 군사 및 경제적 《원조》는 미국의 팽창 정책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식민지 예속화의 중요 방법이다.

미국의 대외 《원조》 형식은 벌써 두 차례의 세계 대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미제는 두 번 다 대전 초기에는 직접 참전치 않고 교전국에 군수품을 대량적으로 수출하였고 참전한 후에는 《동맹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제 2차 대전 기간에 미제의 대외 《원조》는 주로 《조차법안》을 통하여 감행되였다.

제 2차 대전 후 미제는 영국, 불란서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쇠약하여진 것을 기화로 경제 《원조》라는 미명하에 대외 팽창의 길에 들어 섰다. 2차 대전 직후에는 이 《원조》가 주로 서구라파를 예속시키는 데 돌려졌다. 악명 높은 《마샬안》, 《트루맨주의》 등이 그의 구체적 표현이였다.

그 후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위력이 장성되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자 미제는 종래의 경제적 《원조》 방법을 바꾸어 로골적인 군사적 《원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회에서 1951년과 1954년에 통과시킨 《호상 안전 보장 계획》이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공산주의 침해》로부터 《자유 세계》를 보위하며 호상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하에 방대한 대외 《원조》 계획을 작성하고 수 많은 딸라를 지출하고 있다.

미제의 대외 《원조》 항목에는 《호상 안전 보장 계획》에 근거한 《직접적 군사 원조》, 간접적 군사 《원조》인 《방어 지지》,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서 자원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본 수출을 노리는 《기술 원조》, 군사 집단에 참가하지 않는 후진 국가들을 롱락하는 데 미끼로 사용하는 《개발 원조》, 미국 480호 법령에 의한 잉여 농산물 《원조》, 국제 부흥 개발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을 통한 대외 《원조》 등이 있다.

미제의 대외 《원조》의 명목은 각이하나 그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다.

워싱톤 지배층들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최소한의 투자로써 미국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철두 철미 예속과 략탈의 수단에 불과하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하여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 경제와 자주 독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침해하고 자기에게 예속시키며 무제한한 략탈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 여개의 후진 국가들은 1948년부터 1958년까지에 총액 250억 딸라의 미국 대외 《원조》를 받았다.

그런데 미국 《원조》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경제가 앙양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반대로 피《원조》 국가들은 채무자의 구렁 속에 더욱 깊이 굴러 떨어져 가고 있다.

금년 초에 세계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세아 및 중동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의 실례만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11개의 아세아 및 중동 국가들의 대외 부채액은 19억 딸라로부터 39억 딸라로 증가되였다. 19개국의 중남미 국가들의 부채액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에 37억 딸라로부터 52억 딸라로 증가되였다. 여기에서 가장 큰 채권국은 바로 다름 아닌 미제다.

미제는 대외 《원조》를 통하여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례컨대 1954년부터 1957년 기간에 라틴 아메리카에 20억 딸라의 대외 《원조》를 주었는데 이로부터 짜낸 리윤은 무려 30억 딸라나 되였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속담에 있는 바와 같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20세기의 악독한 고리대업자이며 날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의 대외 《원조》는 예속과 략탈의 수단이다.

남조선에서 《원조》를 위한 전제 조건의 조성

미제의 대외 《원조》를 통한 예속화와 지배는 남조선에서 가장 로골적이며 철면피한 형태로 감행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직후부터 《원조》의 형태를 이러저러하게 바꿔 가면서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 유지하고 침략 전쟁을 준비하였다. 침략 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남조선을 미군과 괴뢰군의 군사 활동 보장과 인적 물적 자원을 략탈하는 데 리용하였고 정전 후에는 남조선에서 군사 기지를 강화하고 미국 독점 자본의 항구적인 지배와 략탈을 보장하기 위한 착취 체계를 정비 강화하는 데 리용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이른바 《해방자》, 《원조자》의 가면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 든 미제는 남조선을 미국의 독점적 《잉여》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터전을 닦으며 《원조》를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경제에 대한 파괴 략탈과 함께 침략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앞잡이로 될 충복을 길러내는 데 발광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고사하고 심지어 서신 거래까지 단절시키고 38선 이남 지역을 자기들의 독점적인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에서 상투적 수'법은 민족 분렬 정책이다.

그런데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하고 있

는 민족 분렬 정책은 동서 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하다.

조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독일에서는 그래도 동서 간에 래왕은 하고 있으며 윁남에서도 남북 간의 서신만은 지금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만은 례외로 되고 있다.

미제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단절하고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기 위하여 미 군정청 명령 제 2호와 《관재령》 제 8호를 공포했다.

미 군정청 명령 제 2호에는 《1945년 8월 9일 이후 38도선 이남에 있는 공 사 재산(과거 일본인 소유)의 리권은 직접 또는 간접이거나, 일부 또는 전부이거나 그 형태와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1945년 9월 25일부로 미 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접수한다》고 밝혀져 있다.

조선 인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한 미제는 략탈적인 《관재령》 제 8호로써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 광산, 탄광, 농림, 수산, 상업, 은행, 선박, 운수, 교육 문화 기관 등의 운영권과 관리권마저 독점하였다.

이렇게 미제는 군정 5개월 간에 과거 일제의 수중에 장악되였던 남조선 총 재산의 80%, 공업 부문 총 투자액의 94%, 남조선 주식 회사 총 자본의 91%에 해당하는 동산과 부동산을 략탈하였다.

남조선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압도적 부분을 점탈한 미국 침략자들은 공장, 기업소들을 계획적으로 폐쇄, 해체, 불하하는 방법으로 남조선 경제를 단시일 내에 파괴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장, 기업소 수는 축소되고 생산은 격감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저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앞잡이로 될 계급적 지반인 예속 자본가와 지주를 규합하는 흉책도 병행하였는바 1948년에는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조작하였다.

그들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의 단절, 남조선 민족 경제의 파괴, 괴뢰 정부의 조작으로써 남조선을 자기들의 독점적 잉여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고 본격적으로 략탈적인 《원조》를 위한 전제 조건을 완전히 조성하였다.

미제는 리 승만 괴뢰 정권과 《한미 경제 원조 협정》(1948년 12월), 《한미 호상 방위 원조 조약》(1950년 1월), 《한미 군사 경제 원조에 관한 협정》(1954년 11월),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1956년 11월) 등을 체결하고 《원조》라는 미명하에 남조선 경제를 합법적으로 예속시키며 략탈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 주고 있는 략탈적 《원조》의 항목에는 《직접적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가 있다.

《직접적 군사 원조》

《직접적 군사 원조》는 미국의 대외 《원조》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는 《원조》의 형식이다.

이 《원조》는 미국이 조작한 군사 뿔럭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군사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 군사 고문단의 파견, 군수 공장과 군사 기지의 건설, 무기와 탄약의 제공, 군사 간부들의 훈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원조》이다.

미제는 벌써 전쟁 전에 리 승만 역도와 《한미 호상 방위 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준비하면서 괴뢰군 장비의 급속한 증강과 현대화를 위하여 《직접적 군사 원조》를 주었다.

《한미 호상 방위 원조 조약》의 침략적 본질은 그의 제 1조 1항만 보아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즉 미국이 남조선에 제공하는 《군사 원조》에는 전쟁 도발에 필요한 것만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 상층부는 당시 미제에 《군사 원조》를 애걸하여 나섰다.

리 승만은 1949년 4월, 소위 유엔 《특사》 조 병옥에게 보낸 비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나는 당신의 이러한 정형에 대하여 극 비밀리에 유엔 및 미국 고급 관헌들과 털어 놓고 론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우리에게는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여 있는 것이요》.

미제는 남조선 인민이 마치 《군사 원조》를 요구하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면서 1949년 한 해에만 하여도 괴뢰 도당에게 무려 1억 9,000만 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제공하였다.

괴뢰 도당은 이 《군사 원조》에 의하여 괴뢰 정부 조작 당시 5개 려단에 불과하였던 괴뢰군을 1949년 6월에는 8개 사단 즉 10만 여명으로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5만 명의 괴뢰 경찰까지 무장시킬 수 있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원조》는 전쟁 시기에 더욱 대규모적으로 감행되였다.

2차 대전 후 미제가 50 여개 국에 준 대외 《원조》 총액이 매년 평균 40~50억 딸라였던 것이 조선 침략 전쟁 기간에는 무려 70억 딸라에 달하였다.

조선 전쟁 기간에 미제의 《군사 원조》는 미국 전쟁 상인들을 무한히 부유하게 만들었다.

사실 그들은 《군사 원조》를 통하여 전후에 엄습한 경제 공황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전후에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군사 원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정전 후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는 침략 전쟁 준비의 기본 목적은 전쟁 전과 다름이 없다. 즉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화하고 전 조선을 강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쏘련과 중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미국 제 10군단장이였던 올몬드는 1954년 말에 미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언하였다:

《중국을 반대하는 데 조선보다 더 나은 전투장은 없다. 공급 기지, 해공군의 지원을 위한 기지를 가진 조선보다 더 나은 전투장은 없다.

후방 기지로 될 일본, 비률빈, 대만 지역은 중국이나 쏘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조선은 제 1급의 전략적 지역이다》(《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54년 12월 10일).

이러한 목적 밑에 정전 후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원자 전초 기지로 전변시키며 괴뢰군의 병력과 장비를 더욱 증가하기 위하여 날뛰였다.

원자전에 적응하게 괴뢰군 현유 병력의 정비 강화, 그의 화력의 보강, 예비군의 대량적 확보 등 괴뢰군 증강 정책은 불피코 《군사 원조》의 대폭 증가를 동반하였다.

미 국방성이 금년 2월 23일에 발표한 1950년부터 10년 간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 원조》 총액은 12억 9천 194만 7,000딸라나 된다. 다시 1960년 회계년도(1959년 7월 1일~1960년 6월 30일)에 남조선에는 2억 899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배정하고 있다.

이 《군사 원조》에 의하여 괴뢰군 병력과 장비는 급격히 증강되였다. 정전 당시 괴뢰군 병력수는 16개 사단이였는데 현재는 31개 사단으로서 63만 명을 넘으며 그의 화력은 수배로 증강되였다.

오늘 미제는 《군사 원조》의 효과적인 리용을 목적으로 괴뢰 련합 참모 본부, 괴뢰 국방부, 괴뢰 륙해공군 본부를 비롯한 각종 지휘부와 현역 및 예비 사단, 주요 병종 부대, 군부대, 군사 학교 심지어 후방 부대들에까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여 괴뢰군의 군사 행정 및 작전 행동과 후방 공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

미제가 괴뢰군을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조치는 비단 미 군사 고문단과 남조선 주둔 미 8군에 의하여서만 아니라 직접 미 군사 수뇌 기관들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1959년 2월에는 미 대통령 직속 《군사 원조 계획 위원회》 위원장 드레이퍼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작년 9월에는 미 국방성 《군사 원조》 담당부차관보 찰스 에취셔프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금년 6월에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미 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특파되여 괴뢰군을 전면적으로 검열하였다.

늙다리 승냥이 아이젠하워는 괴뢰 국방부 장관에게 괴뢰군을 《강화할 계획을 세우라》느니, 침략적 《한미 방위 협정》의 《채무》를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하라느니 하고 공공연히 명령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희생하겠다는 결의를 표시》하는 자만이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느니 하는 모욕적 언사를 뇌까림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참을 수 없는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미제의 《군사 원조》의 결과 남조선 무력은 미제의 무력의 보충물인 식민지 고용군으로 되여 버렸고 방대한 군사비 부담으로 인민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은 자본주의 국가 출판물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치 거대한 군인 야영지와 같은 감을 주고 있으며》 《한 개의 기생 군대를 가진 인민들의 수용소처럼 되였다》(미국 신문 기자 잭크 문이어와 불란서 신문 기자 루시오 파타르의 기사에서).

《경제 원조》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직접적 군사 원조》 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를 통해서도 철면피하게 예속과 략탈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제의 대외 《경제 원조》 항목에는 《기술 원조》, 《개발 원조》, 《잉여》 농산물의 《증여》, 국제 부흥 개발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을 통한 《차관》 등이 포함되여 있다.

미제가 남조선 괴뢰 도당에게 제공하는 《경제 원조》란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상품 시장으로,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하기 위한 미국 국가 독점 자본의 투자이다.

미제는 리 승만 괴뢰 정부와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의 모든 자원의 처리는 물론 생산 및 판매를 비롯하여 재정 및 신용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한 통제 관리권을 장악하였다.

이 《협정》은 심지어 남조선에 파견된 미국 상인들에게까지 외교 사절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제 침략에 유리하고 무제한한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미제는 《경제 원조》를 미끼로 하여 괴뢰 도당에게 예속적인 협약을 강요하였다. 《경제 조성 협정》,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의 략탈성은 미제의 침략 기관인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가 실로 만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실제 주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국 대표는 《시설, 물자 및 기타 원조의 구매 및 적송 조치를 강구하며 이 원조의 분배 및 리용을 감독하며》 남조선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며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경제 《고문》들은 괴뢰 정부 각 부서, 각종 위원회, 주요 기업체들에 파견되여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배 통제하고 있다.

최근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는 허정 괴뢰 정부의 《예산 편성과 환화 사용 계획》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심의》하여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이미 괴뢰 정부 재정 예산을 틀어 쥐고 있는 미제가 그 편성 및 집행의 구체적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략탈에 유리하게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언론 및 정계에서까지도 《미국측의 재정 경제 정책상의 참여와 발언권 범위》가 《일반 회계 지출의 세목에까지 확대》되여 괴뢰 정부의 《재정 예산》이 더욱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였으며 이것은 《내정 간섭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 식민지 통치다.

사실상 괴뢰 정부의 《재무부》, 《상공부》, 《농림부》, 《부흥부》 등 경제 부서들은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아무 자주성도 없는 집행 기관에 불과하다.

괴뢰 정부는 심지어 철도 운임으로부터 리발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허》 또는 《관영》 료금마저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미제는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통하여 괴뢰 정부를 조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가로 타고 들어 앉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경제 원조》라는 미명하에 무제한한 략탈 행위를 감

행하였다.

미제는 남조선 강점 후 1959년 9월 말까지 기간에 도합 27억 딸라에 달하는 《잉여》 상품(그 중 약 80%는 《잉여》 농산물)을 《원조》로서 《증여》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미국은 강점 후 1958년까지 기간에만 하여도 토지, 건물 등의 징발과 군사비의 략탈 등으로 《증여》액의 근 배에 달하는 42억 8천만 딸라를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빼앗아 갔다.

미제는 《원조》 물자의 《증여》로써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판매 대금인 《대충 자금》(代充資金)을 가지고 악랄하게 예속과 략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즉 《대충 자금》의 거의 전부를 《군사력 지원을 목적》한 시설 부문과 괴뢰군 유지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도 군수 공업 부문에 투자 및 융자함으로써 남조선의 재정 금융 기관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하여 경제를 더욱 예속화하고 있다.

전후 1954년부터 1959년 9월까지 《경제 원조》 물자 판매 대금인 《대충 자금 적립금》 총액은 6천 25억 환에 달한다. 미제는 《대충 자금》 적립금 중 66%를 괴뢰 《정부》 예산에 전입하여 괴뢰 통치 기구와 괴뢰군을 유지 장악하는 데 리용하였고 나머지 34%는 경제 각 부문에 융자 또는 투자하여 그를 략탈하고 있다.

한편 《기술 원조》로써 미제는 남조선 경제를 예속시키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기술 용역(用役) 회사들이 남조선 경제 각 부문에 침투하여 《기술 제공》이란 미명하에 남조선 자원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재부를 략탈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서 낡아 버린 기술 설비, 부속품 등을 강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제의 《경제 원조》는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째 말아 먹는 예속과 략탈의 흉악한 수단이다.

《원 조》의 후 과

지난 14년 간 미제는 남조선에 무려 104억 딸라를 《원조》하였다. 그 중 77억 딸라는 《직접적 군사 원조》이고 나머지 27억 딸라는 《경제 원조》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 정치, 경제, 군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정치적 지배,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통한 경제권의 장악, 《유엔군 사령관》을 통한 군사적 통제 즉 미제의 3두 통치에 의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병참 기지로,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전락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미제에 의한 정치-군사적 예속은 더 론할 여지조차 없고 경제적 예속만 보더라도 남조선 경제는 미제의 군사화 정책에 복종되는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잉여》 물자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존재가 유지되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 산업은 원료의 70~80%를 미국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 남조선의 고무 제조, 제분, 제탕업은 원료의 100%, 섬유 공업은 원료의 95%를 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실로 남조선 산업은 미제가 팔아 넘기는 《잉여》 상품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예속되였다.

괴뢰 당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59년 7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기간에 남조선 경제가 유지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 총량은 4억 7천 823만 2,000딸라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충당하는 량은 전체 소요량의 4.8%인 2천 325만 8,000딸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남조선 산업은 미국의 원료뿐만 아니라 기술 설비에 전적으로 예속된 《하청 공업》(下請工業)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미 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 경제의 예속성을 리용하여 남조선에 《잉여》 상품을 국제 시장 가격보다 곱절이나 비싼 값으로 강매하여 초과 리윤을 얻고 있다.

석탄 값만 해도 톤당 국제 시장 가격이 15딸라인데 남조선에 대하여는 30딸라 80센트로 강매하여 왔다.

미제는 이렇듯 《원조》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잉여》 상품을 무제한 강매함으로써 남조선 민족 산업의 파산을 촉진시켰다. 남조선 인민들의 구매력이 극도록 저하된 형편에서 방대한 량의 미국 《잉여》 상품이 밀려 든다는 것은 남조선 공업품의 판로를 봉쇄하는 것이며 남조선 민족 산업을 질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 민족 산업은 1958년 11월 현재 일제 말기에 비하여 그의 3분의 2가 불완전 조업 상태에 있고 공업 총 생산액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원조》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미제의 예속과 략탈 행위는 농업 부문에 대하여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미제는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남조선에 강매하고 남조선의 쌀을 헐값으로 강탈하여 일본에 팔아 넘기여 2중 3중의 략탈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수요의 거의 100%를 미국 《잉여》 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악랄한 모리 착취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10 여만 정보에 달하는 남조선 농토를 군사 기지로 강탈하고 농민들을 땅으로부터 쫓아내였다.

곡창 지대였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 전대 미문의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 파종 면적은 일제 때보다 60만 정보나 감소되였고 알곡 수확고는 40%나 저하되였다.

민족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령락은 불가피하게 실업자와 절량 농민을 대량적으로 산생시키고 있다.

수백만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 300만의 절량 농민이 생활 방도를 잃고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원조》가 빚어낸 후과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이러한 미국식 〈원조〉의 후과를 그 어디서보다도 뚜렷하게 보고 있다. 미군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형제 국가 인민들의 고귀한 국제주의적 원조》, 선집, 4권, 2판, 82페지).

남조선의 비참한 경제 형편과 《4,000년

래의 민생고》는 이른바 《원조》의 가면 하에 감행되는 미제의 새 형태의 식민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미국식 《원조》—이것은 예속과 략탈의 도구다.

남조선 어용 출판물까지도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미국식 《원조》의 본질에 대하여 더는 감쌀 수 없어 《미국 딸라가 들어 오면 들어 온만큼 대한 민국은 망한다》(《자유 세계》)라고 비난하게 되였다.

사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 정 일당과 《민주당》 두목 장 면은 이러한 침략적 《원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만 하면 남조선을 구원이나 할듯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남조선 인민은 15년 간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것은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예속과 략탈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양담배, 커피를 비롯하여 미국 《잉여》 상품의 배척 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어찌 우연한 현상이겠는가.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식 《원조》를 단호히 배척하고 공화국 북반부와의 경제 문화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물러 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성취하고 공화국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하는 길만이 남조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후방 사업은 정치 사업이다

맹 효

우리 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지는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후방 사업은 의연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과 기업소 관리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가에서 배당해 준 자금과 물자도 후방 사업에 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도 일'군들은 가까이에 있는 로동자들의 합숙이나 주택에 한 번 나가 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이와 같은 무관심성은 전적으로 사상 관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당이 그처럼 강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결코 어떤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상 수준 여하에 달린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적 군중 관점,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적 관점이 없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 관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상 투쟁이 앞서야 할 것이다.

자기가 편안히 지내니 로동자들이야 어떻게 살건 아랑곳 하지 않는 태도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부르죠아들이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할리는 만무하다. 부르죠아들과 기타 착취자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근로자들의 고통 우에 세운다. 근로자들의 기아와 빈궁은 오히려 부르죠아들의 치부의 원천으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착취 계급들은 인민 대중을 력사에서 아무런 역할도 놀지 못하는 우매한 무리로 보며 지배자들에게 공손히 복종해야 할 것으로, 지어는 단순히 말하는 생산 도구로 간주한다. 인민 대중에 대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관료주의적 통치 방법도 흘려 나온다.

인민 대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물론 우리 당의 사상 관점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우리 당은 인민을 온갖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모든 정책에는 인민의 요구가 반영되여 있으며 그의 실천적 활동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인민 대중의 리익은 곧 우리 당의 리익이며 인민 대중의 리익을 떠난 당의 리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 대중의 리익과 행복에 대한 철저한 복무와 충실성 그리고 혁명 동지

에 대한 두터운 사랑과 존경—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지도 일'군들의 주요한 도덕적 품성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은 무장 투쟁의 그 어떤 어려운 때에도 인민을 보위하며 그들의 리익을 수호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으며 털끝만치도 인민의 리익에 손상을 준 일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언제나 혁명 동지를 아끼고 전우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였으며 부하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슨 애로가 있는가를 알아내고 제때에 이를 해결해 주는 데 관심을 돌렸다. 인민에 대한 이 충실한 복무로 하여 그들은 인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혁명 동지들 간에는 이러한 우애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 유격대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일제와 15개 성상이나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근로자들은 인민 대중이자 동시에 전우이며 동지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자들은 우리와 혁명을 같이 하는 혁명 동지이다. 오늘 우리 제도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없다. 로동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혁명 동지이며 혁명 전선에서 같이 싸우는 전사이다》. 혁명 사업은 지도 일'군 몇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더우기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이다.

지도 일'군들은 나라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복무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사상과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당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며 그들이 곤난해 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라고 해서 그들을 지도 일'군으로 배치한 것이다. 또 지도 일'군들 자신도 근로자들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로동자들에 대한, 군중에 대한 낡은 사상 관점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함이 없이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돌보는 후방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 후방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군중 관점을 확립하는 문제와 함께 후방 사업 자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는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 지도 일'군들 가운데는 후방 사업을 단순한 경리 사업으로 간주하고 후방 부문 일'군들에 일임해 두거나 혹은 생산 사업이 바쁘다 하여 후방 사업을 등한히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대체로 그들의 군중 관점과 관련되는 것이지마는, 일부 경우에는 일'군들이 후방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그럴 수도 있다.

후방 사업은 당과 국가가 인민 생활을 위하여 지어 주는 조건들과 해당 기업소 또는 직장 내부의 가능성들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며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경리 사업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업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동무들이 만일 이것은 후방 사업이니 후방 일'군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바로 로동자들의 생활 향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 데 생산의 성과 여부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어찌 정치 사업이 아니겠는가?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 사업에는 후방 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후방 사업을 떠난 정치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정치 사업을 잘 하려면 후방 사업도 잘 해야 한다》(방점은 인용자).

정치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근로 대중의 의식성을 제고하며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들의 수행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 가지 사상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직 정치 사업, 후방 사업이 결합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상술한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 성과를 확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물론 의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또 물질적 생활 조건과는 상관 없이 사상 사업만으로써 의식을 무한히 제고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의 사상 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로동자들의 물질적 생활을 개선해야 하며 문화 생활도 잘 조직해야 하며 그들에게 적당한 휴식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과 생산의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사상 사업 뿐만 아니라 후방 사업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근로자들은 우선 로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도 일정한 영양 섭취와 주택 조건과 휴식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기에 걱정이 없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질수록 일에 성수가 나고 로동 생산 능률이 오르고 생산에서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법칙이다. 지도 일'군들이 후방 사업에 세밀한 주의를 돌려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 준다면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가 좋다는 데 대한 신념과 당과 정부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을 더욱 굳게 할 것이며 따라서 자기 사업에 더욱 열성을 내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와 생산 장성을 위하여,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더욱 창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유능한 지휘관이 전사들을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는 것이 전투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과도 같다.

후방 사업이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혁명 과업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경리 사업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후방 사업은 또한 사람과의 사업으로서, 지도 일'군들과 근로자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집단 내부의 동지적 단결을 공고히 하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치 사업으로 된다.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에 부단한 관심을 돌려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며 그들이 곤난에 부닥

쳤을 때 이를 방조해 주는 사업과 작풍은 동지적 우애와 단결을 강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될 것이며 어느 때나 당이 호소하는 데로 전체 집단이 한 사람같이 나설 수 있게 할 것이다.

후방 사업이 정치 사업으로 되는 리유는 결코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목적은 인민을 잘 살게 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데 있다. 때문에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배려는 맑스-레닌주의 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기의 모든 활동 특히 경제 조직자적 활동을 통하여 국가 축적을 증대시키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과 그의 부단한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을 조성한다. 여기에서 매개 기관 기업소들 앞에는 《…국가가 지어 준 조건들과 기업소 내부의 가능성들을 적극 리용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김 일성 선집, 제 5 권, 110페지)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매개 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배려를 자기의 후방 사업으로써 구현하며 또 보충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사업은 당 활동의 최고 목적을 실현하며 근로 대중을 당과 정부 주위에 묶어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이 원만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의 위업이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후방 사업은 그 어느 모로 보든지 혁명의 목적, 계급적 목적 달성에 복무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중요한 정치 사업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전변된 협동벌

리 근 영

나는 1955년 가을부터 만 3년 동안 평안남도 문덕군 동림리 원동 마을에서 현지 생활을 하였다.

동림리는 청천강이 서해로 합류되는 곳에 있으며 열두삼천리 벌에서도 중요한 지대로 되여 있다.

내가 이곳에 갔을 적에는 협동 경리의 두번째 벼가을을 하기에 한창 바쁠 때였다.

벌판에서는 벼이삭이 황금 파도로 출렁이며 마을의 곳곳에는 벼'가리가 둥실둥실 봉우리를 이루었고 그런 곳마다에서는 탈곡기 소리가 요란하였다.

마을과 벌판이 온통 풍작의 흥겨움으로 들끓고 있었다.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삶의 보람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바삐 서둘렀다. 작업장에는 언제나 노래와 웃음이 꽃피였다.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생활하는 동안 전변되여 가는 농촌 모습들에 반하고 말았다.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사람들의 사상 의식과 정서에서도 많은 전변을 가져 왔고 계속 전변되고 있다.

8. 15 해방 열 다섯 돐을 맞이하면서 내가 유달리 동림리의 전변된 모습과 특히는 원동 마을의 전변된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려는 리유는 첫째 이 마을의 실정을 어느 정도 속속들이 료해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아주 우수한 농촌보다도 벌방에서 평균의 위치에 있는 보통의 농촌을 소개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 의의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변된 농촌의 일반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싶어서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될 때

동림리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곳을 조선의 《북간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해방 전에 생긴 말인데 본토백이 사람보다 다른 지방에서 모여 드는 사람이 많다는 데서 온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 드는 리유는 경작지가 많다는 것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간석지를 동으로 막으면 농민들이 개간하여 논으로 풀었다.

갈뿌리로 얽히고 얽힌 땅을 쌍 소로 갈아엎는데 기껏해야 하루에 700평 정도며 이렇게 해서 개간한 땅을 4~5년 고생하여 해미(소금 기운)를 물에 우려내야 부종할 수 있고 제대로 소출을 내려면 10년 동안은 공력을 들여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지주들은 소작권을 이동하기가 일수며 혹은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다. 그리고 하늘만 믿고 농사하는지라 한재나 홍수를 당하면 일조일석에 거덜났다. 그들은 갈게를 잡아 팔거나 싹 가래질이나 혹은 싹 살결이를 하거나 하여 연명하다가는 이곳도 살 곳이 못 된다 하여 도회지나 광산의 로동판에로 떠났다.

이와 같이 동림리는 《북간도》와 같이 가난뱅이들이 산지사방에서 모여 들고, 그런가 하면 정거장처럼 또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사람 못 살 원한의 고장이였다.

그러나 오늘에는 동림리 어느 부락에 가서든지 녀성이건 로인이건 누구든지 붙잡고 그들의 생활 형편을 물어 보시라. 그들은 새 문화 주택이나 기와집으로 개조된 주택에서 먹고 입는 것의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을 말할 것이며 혹은 아들이나 손자가 대학과 고급 중학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며 혹은 기계의 도입으로 농사 짓기가 한결 수월하고 흥겹다는 것을 신이나서 말할 것이다.

1956년 11월 어느날 밤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마침 다음 날이 도, 시, 군(구역)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여서 원동 마을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선전실에 모여 들었다. 써클원들이 마련한 연극 공연이 있은 다음 관리 위원장인 강 인학 동무가 무대 우로 껑충 뛰여 올랐다. 그는 성질도 급하거니와 모든 일에 정열적이여서 좋은 일에는 이내 감격하고 옳지 못한 일에는 무섭게 분격하며 타협할 줄 모른다.

강 인학이라 하면 토지 개혁 때의 일을 회상하고 그를 《숙청대장》이라고 부른다. 지주 숙청에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대담 무쌍하였던 것이다. 그는 8. 15 전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학교에 다녀 보지도 못했으며 가난을 견디지 못해 결혼 며칠 뒤에 색시가 도망치고 말았었다.

그랬던 강 인학 동무는 문덕군 당 집행 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문덕군 인민 회의 대의원에 립후보하였다. 또한 1959년 1월에는 로력 영웅 칭호를 받았다. 그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면 청산류수처럼 풀어 나가며 내용도 풍부하여 대학 졸업생에 못지 않다는 것이 정평이였다.

이날 밤도 강 인학 동무는 흥분을 참지 못해 상기된 얼굴로 웅변을 토하였다.

그는 8. 15 해방 이후 시종일관 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해 준 당과 정부의 배려를 해설해 주었다. 특히 농촌에 대한 정책, 그 중에도 토지 개혁으로 농민들을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만들었고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로 개조하여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 높여 주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남녀 평등권의 혜택으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녀성들이 작업반장을 하며 로력 평가의 프로수를 재깍재깍 계산해내고 작업 조직을 솜씨 있게 해낸다는 것을 말하였고, 일제 때에는 면 《협의원》을 선거하려도 세금을 5원 이상 무는 사람만 참여했었는데, 그 동안 동림리에서는 군 대의원에 남자와 녀자 1명씩, 면 대의원에 1명, 리 대의원에 남녀 12명을 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구려, 옛날부터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계급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옳게 서면 국가만이 가난을 구제합니다. 그 뿐 아니라 녀자가 치마를 둘렀을 망정 남자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국가의 힘이고 모든 인민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해 주는 것도 국가입니다》.

그날 밤 이런 의미로 말한 강 인학 로력 영웅의 말이 나의 귀에는 지금도 쟁쟁하다. 나는 그의 말에서, 해방된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궁벽하던 이 농촌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지상 락원》으로 전변된 자연을 새삼스러이 느낄 수 있었다.

협동벌의 새 면모

마을에 협동 조합이 조직된 것은 1954년 봄이였다. 여기에는 19호의 농가가 망라되였다. 이것이 농업 협동 조합의 출발이였다. 그 후 조합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다음 해에는 벌써 리내에 7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였고 1958년에는 리내에서 협동화가 완성되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하나의 협동 조합—동림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은 농민들에게 새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다. 온갖 착취와 빈궁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날과 더불어 앙양되였다. 협동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농촌 경리를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하는 데서 명백히 표시되였다.

8. 15 해방 전에 이 고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건갈이 농사를 했는데 비가 와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이였다. 락종 전에 비가 오면 어린 아이까지 총 동원하여 배수로를 내고도 양재기와 쪽박으로 퍼냈으며 락종 후에는 물을 서로 잡아 두노라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일이 많았다. 농민들은 한 정보의 논에서 800키로 내지 1톤을 거두는 정도였으나 물이 없기에 건갈이를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형편이 아주 달라졌다. 해방 후 인민 정권은 1948년부터 원흥포 양수장의 물을 대 주었는데 해방 전 지주 끼리 조직한 《농무조합》(農務組合)에서 대 준 수량의 몇곱절이며 모두 물모 농사를 하게 되였다.

평남 관개 공사의 완공으로 수리화는 드디여 완성되였다. 평남 관개의 물이 원동 마을의 복판으로 처음 흘러 갈적에 조합원들과 로인들은 너무도 반가와서 옷을 입은채 물 속에 뛰여 들기도 하였다. 조합의 논은 물론 원동 마을의 밭에까지 관수하였고 논판 양어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간석지를 일쿠어 논으로 풀었다.

동림리에서는 어느새에 해변의 외딴집 둘을 제하고는 모두 전등을 켜게 되였고 정미소를 비롯하여 각종 작업에 전기 모타를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기계화 도입은 한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년만 하여도 기경과 써레 작업의 90%를 뜨락또르가 해주었으며 수송 작업까지 몽땅 해 주었다.

금년에 내가 원동 마을에 갔을 적에 마침 뜨락또르가 물 써레질을 하고 있었다. 원래 뜨락또르란 진탕에 빠지는 통에 물써레질은 못한다 하여 믿지 않았던 원동 부락 남녀 로인들은 앞을 다투어 구경하러 나왔었다. 감격을 참지 못해 로인들 끼리 주고 받던 말들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기계가 못하는 일이 없어.

—모내기 기계도 나온 다지?

—사람은 모만 길러 놓으면 다겠군.

—벼 종자를 즉접 기계로 뿌리게 된대.

—진짜 별난 세상이야.

—죽지 않아야 더 좋은 세상을 볼텐데.

결국 로인들은 죽지 않는 약은 만들지 못하는가를 나에게 묻게까지 되였다. 빈궁과 고역에 견디다 못해 말끝마다 《당장 없어졌으면…》 하는 말로 죽기를 바라던 그들이 아니였던가.

지금 이 마을에서는 동력 탈곡기는 물론 북데기를 처리하는 기계도 창의 고안하였고 제재 작업, 랭상모 문짝에 구멍을 뚫는일, 새끼 꼬기와 가마니 짜는 작업도 기계화되였다. 원동 마을에는 농기구 수리소가 으젓한 철공소 같이 설치되였는데 거기에는 용접기 1대와 선반 1대도 있다.

동림리에서는 이렇게 수리화, 전기화가 완성되였고 특히 기계화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집약화 농법이 성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벼 생산고는 년년이 장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통계가 실증하여 주고 있다.

논 면적 및 벼 생산고 장성 통계

	논면적 (반)	정당 수확고 (키로)	벼 총 생산량(톤)	인구 1인당 생산량(키로)
1944년	5,434	1,300	706	523
1953년 (개인농 시기)	7,515	2,850	2,142	765
1959년	11,702	3,950	4,622	1,383

경제 형편은 축산 부문, 수산 부문에서도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뚜렷하게 실증해 주고 있다.

동림리에서는 원동 부락에만 밭이 약간 있고 논 뿐이여서 축산업 발전에 아주 불리하였다. 개인농 시절에는 돼지는 기르지 못할 것으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이 통합된 뒤에 원동 마을에 소 외양'간과 돼지우리로 벽돌 건물을 세웠는데 큰 공장이 들어 앉은 것 같다. 공동 축산을 대규모로 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은 모두 돼지를 기르고 있다. 실로 돼지는 해방 전에 비해 27배, 개인농 시기에 비해 6.2배로 격증하였고 소도 4배 이상으로 불었다.

이외에 수산업을 보면 8척의 어선으로 1959년도에 98톤의 생산 과제를 108%로 초과 달성했으며 현재 30정보에 담수 양어, 600 정보에 논판 양어를 하고 있으며 고기 새끼 1천 200만 마리를 풀어 놓았다. 명년에 가서는 담수 양어로 숭어, 붕어 등 물'고기를 90톤이나 생산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마을에서 들려 오는 전기 모타 소리를 들으며 협동 벌을 흐르는 관개수와

밤이나 낮이나 달리는 뜨락또르, 자동차를 볼 적마다 《물이 산으로, 발으로 올라 가는 세상》, 《사람과 소 대신 기계가 농사해 주는 세상》, 《풍년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만드는 세상》이란 말로 오늘의 농촌 전변을 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생활의 락원

이 지대 사람들은 봄을 《노란 봄》이라 부른 적이 있었다. 물론 일제 때에 생긴 말인데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춘궁기의 실정을 상징하는 것 같다. 즉 봄이 되면 일은 고되나 배 부르게 먹지 못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는 데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일제 때에 산'골 사람들이 쓰던 《꼬깔밥》이라는 말을 벼 농사만 짓는 이 곳 농민들이 써 온 것도 이런 사정을 말해 준다.

그들은 벼 농사만 짓고도 그것은 지주와 빚쟁이에게 모두 빼앗기고 지주에게서 황정미(만주 좁쌀)를 얻어 먹고 가을에 가서는 빚낸 것의 절반을 리자로 쳐서 쌀로 준다. 이것 마저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 농민들은 정작 벼 농사를 자기들 손으로 짓고도 먹는 것은 황정미였고 제사 밥의 꼭대기에도 서너 숟갈의 쌀밥을 올려 놓군 했다. 이것을 《꼬깔밥》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는 옛말로 되였다. 지금에 와서 이 고장 농민은 언제나 쌀밥만 먹으며 소와 돼지의 사료로 쓰려고 산'골 농업 협동 조합에 쌀을 주고는 콩을 받는 형편이다.

이곳 조합원들의 생활 형편이 얼마나 유족해 졌는가는 작년도의 분배량 하나만 보아도 충분하다. 이 조합에서는 지난 해에 공동 축적 폰드 25%, 문화 폰드 7%를 공제하고도 호당 알곡 2톤 142, 현금 55원을 분배하였다. 조합원들은 이것으로 1년 가계를 쓰고도 남아 많은 저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이상의 분배량이 예견되고 있다.

나는 언젠가 김 기방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소작답 2,000평을 부쳤다.

농사가 잘 되였다는 1944년에 그 소작답에서 벼 15가마니가 났었는데 소작료 7.5가마니, 물 값 3가마니, 비료 값 3가마니, 그외에도 종자 값 등을 제하고 나니 단 한 가마니도 남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 온 식구는 북데기를 두드려 먹거나 갈게를 잡아 팔아 간신히 연명하여 왔다.

그러나 해방후 토지 개혁으로 3,500평의 토지를 분여 받았고 더우기 협동 조합이 조직된 후 그들의 살림살이는 눈에 띠우게 달라져 갔다.

내가 이 조합을 찾아 갔던 해인 1955년의 결산 분배에서 김 기방 조합원의 집에서는 로력자 3명의 몫으로 85가마니의 분배를 받았다.

바로 그날 내가 그집을 찾아 갔더니 김 기방 조합원의 어머니는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왜정 때는 해마다 마당질을 하고 벼 한 가마니 기너(남긴) 본 일이 없고 해방 후 조합이 되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벼 열 가마니 기른 것이 제일 많았어요. 분배가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협동 조합이 우릴 부자 만들어 줬어요. 모두 당과 정부의 배려지요》.

이 당시만 하여도 원동 마을에는 전쟁 시간과 정전 후에 함경북도와 평안남도 산'골에서 온 이주민이 많았다. 이들은 생활 토대가 잡히지 않아 조합에서 식량과 현금을 대여 받아 지냈으나 1957년도에 가서는 빚을 모두 갚고 중농의 생활 정도로 되였다. 동림리 리적으로 빈농민이 완전히 청산된지는 이미 오래며 중농 수준을 올라 섰다.

동림리의 첫 부락인 원동 마을에 들어서면 우선 200호의 집단 부락에 초가집이 한 채도 없고 온통 빨간 기와집들만이 우거진 나무잎 사이로 석양 노을처럼 타오르는 것에 아니 놀랠 수 없다. 1957년 3월까지만 하여도 기와집

과 흙기와집은 단 열 두 채 뿐이였었는데 조합에서는 기와 공장을 설치하고 1년 동안에 모든 집을 기와집으로 개조했을 뿐 아니라 표준 설계에 의한 농촌 문화 주택을 26동 세웠고 상점과 유치원, 탁아소도 세웠다. 그리고 벽돌로 식당과 목욕탕과 축사도 지었다.

집집에는 유선 방송이 들어 가고 하늘 높이 가설된 스피카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 소리는 온 마을을 흥성거리게 하고 있다.

8. 15 해방 전에 문덕군적으로 중학교는 하나도 없었고 보통 학교가 단 여섯 개 있었던 것과 또한 원동 마을에 보통 학교 졸업생이 6명 뿐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문화적 발전 모습은 실로 놀랄 만하다. 오늘 동림리에서는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로 말미암아 모든 아동들이 즐거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고급 중학교와 전문 학교, 대학 학생만 하여도 근 20명에 달한다.

그리고 원동 마을에서 300메터, 2~4키로 상거한 곳에 22~24 교실을 가진 2층 벽돌 건물인 중학교와 기술 학교 넷이 있다는 것은 이 지대의 문화 발전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다.

농민들의 문화 생활은 정서 생활에서도 큰 전변을 가져 왔다.

조합에서는 음악, 무용, 연극 써클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작업반별 경연 대회까지 진행되여 령감, 아주머니들도 합창과 무용에 참가하고 있다. 어느 회의나 써클 공연으로 시작하고 끝났으며 작업의 휴식 시간에는 언제나 노래와 춤이 벌어지군 한다.

사람들도 변하였다

8. 15 해방 전의 이곳 농민들은 다른 지대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무권리, 빈궁, 몽매의 암흑 속에서 악다구니를 써 왔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는 공상에 잠겨 있으면서도 하루 한 끼 죽을 해결하기에도 힘들었다.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자기 본위 사상, 보수성, 분산성을 길러냈다.

농민들 속에 오래 전부터 물혀내려 온 부정적 현상들은 주권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 행복과 아울러 협동 경리의 집단 생활로 하여 차츰 무너져 가기 시작했으며 그들 속에서 새 사회의 새 주인답게 일하는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 마을에 갔을 당시에는 로력자가 없는 조건과 개인농 경리에 대한 미련으로 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지 않은 농가가 여덟 집이였다. 당시 가장 뚜렷하게 눈에 띄는 부정적 현상은 농가가 협동 경리에 망라된 비률에 비하여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큰 가정으로 된 농업 협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뭉치고 그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박약한 것이였다. 조합원 총회를 할적마다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사람을 떼말아 가지고 데리러 다녀야 하는 형편이였다.

낡은 사상 잔재 중에서도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또한 말썽이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무단 결근을 하며, 논을 얕게 갈고 또는 제초기를 땅에 바싹 붙이지 않고 건성으로 빨리만 나가려 하며, 소가 지치는 것도 모른 체 하고 우격다짐으로 몰기만 한 것도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로부터 나온 것이였다. 모내기 때에는 하나의 모'자에서 서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집단적 협동 경리 생활을 통하여 농민들은 점차 분산성과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한 집안 식구처럼 단합되여 갔다.

마을은 눈에 띄우게 한결 흥겨워졌다. 조합원들은 밤이면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며 오락실에서 장기와 꼬니를 두며 선전실에서 좌담회를 하는가 하면 새로 지은 회의실에서 예술 써클 련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조합원들은 조합 사업은 물론 가정의 일까지 간부들과 상의하게 되였다. 이렇게 온 마을은 아이들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농업 협동 조합을 자기 살림으로 알고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였고 이제는 종을 치지 않고도 작업 시간과 회의 시간이 더 잘 보장되였다.

1956년도와 1957년도의 결산 분배 때 원동 마을에서는 오 형준 조합원을 비롯한 로력이 많은 조합원들이 자기 한 사람 몫의 분배량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하겠다고 제기해 나서자 그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벼 1가마니로

부터 10가마니까지 회사하겠다고 자원해 나섰다. 그것은 일반 조합원들보다 아직 생활 정도가 낮은 이주민들을 위해서였다.

그런가 하면 고 영봉, 김 상규 민청원들은 객토 작업을 하다가 비가 올 것 같아 2키로나 되는 데를 뛰여 갔는데 그것은 랭상모 종자를 말리는 관리자의 힘만으로는 그 종자를 비 오기 전에 거둘 수 없을 것을 예상한 까닭이였다. 과연 그들이 벼 종자를 간수하자마자 비는 억수로 내렸고 그들은 작업량을 완수하려고 비를 맞으면서 객토 작업을 하였다.

자기 개인의 리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조합의 리익과 조합원에 대한 동정에 이처럼 나서는 그들 속에서 로력이 모자라는 애국 렬사 유가족, 후방 가족들을 성심껏 도우며 혹은 모내기 때에 서툰 사람을 서로 말아 가르쳐 주려고 나서는 것 쯤은 보통일로 되였다.

64세인 김 길신 로인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과 청산리 당 단체에서의 교시를 받들고 조합에 나와서는 힘든 일만 골라 객토 작업, 논갈이, 개간지 작답을 하며 쉬는 시간에는 남의 가래끈까지 고쳐 주었다. 이 밖에 선우 궁경, 오 인송 등 8명의 로인들도 이에 따라 나섰다.

우리 시대의 농민들은 낡은 사상의 테두리에서 빠져 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개변되여 가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활 환경의 전변에서 오는 표현이며 자기들에게 행복을 준 당과 정부의 배려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 ❊

8. 15 해방 전 전갈이의 농사가 얼마나 고되였는가는 이미 소개된 바와 같거니와 락종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세 명이 무거운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돌같이 굳은 흙을 까부셔 나갈적에 부르던 《몽둥이 타령》에서 그들의 고역에 대한 원한의 심정을 우리는 여실히 감득할 수 있다. 몽둥이'군들은 가사에다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다양하게 토로하였는데 워낙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해지면 그저

야야야야——야야야야——
에헤야 몽둥아

이런 간단한 타령을 불렀다. 많은 가사를 붙이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처지를 몽둥이에게 하소연하는 애절한 심정이 간결한 형상과 곡조를 통하여 진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래질 타령》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어떤 놈의 팔자는 두꺼비 배때기로 기트름만 하는데
우리네 팔자는 웬놈의 팔잔지
5, 6월 염천에 코멘 개란놈
쥐구멍 파듯
우리는 땅만 판다.

그들의 생활 처지와 락망에 빠진 심정을 얼마나 형상적으로 노래했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급 사회의 노래는 그들의 입에서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들의 행복과 미래의 꿈에 대한 노래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노래가 흘러 나올 따름이다.

지금 동림리 사람들은 현재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에서 황홀경을 바라 보고 있다.

그들은 최근 년간에 530정보의 간석지 개간 사업에 착수할 것이며 현 경작지에서 정당 6톤 500을 거둘 것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다. 1958년에 개간한 150정보에서만 금년에 정당 평균 4톤 500을 예견하고 있다.

그들은 축산업에서도 거대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 최근 년간에 소는 300두, 돼지는 3,200두, 토끼는 1만 수, 오리는 1만 2,000수 닭은 6,000수로 각각 장성하게 될 것이다.

수산 부문에서는 어획고를 최근 년간에 250톤까지 끌어 올릴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담수 양어도 더욱 확장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주택 221세대를 기와집으로 개조하며 2층 문화 주택 320세대와 22개 교실을 가진 학교 건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구락부 2동, 탁아소 5동, 유치원 5동, 목욕탕 2동도 머지 않은 장래에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활이 날로 홍겨워만 가는 새 사회, 새 제도하에서 우리 농민들의 행복이야말로 그 무엇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예비는 조직 사업에 있다

김 계 석

조직 사업을 통한 생산 내부 예비의 동원은 우리 공장에서 금년에 작년 실적보다 훨씬 장성된 국가 계획을 매달 초과 완수하고 지난 6월 19일 현재 상반년 총 생산액 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였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 와서 조직 사업에 제1차적 관심을 돌리고 로력 조직과 생산 관리 조직에서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과 6개월 기간에 로력을 근 600 여명이나 축소하고도 로동 생산 능률 계획을 훨씬 초과 완수함으로써 근 300톤에 달하는 면 및 스프사와 90만메터 이상의 직물을 비롯한 각종 제품들을 계획보다 더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현대적 최신 기술로 장비되고 일정하게 째워진 관리 조직과 비교적 높은 생산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우리 공장의 실정에서 일시에 생산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예비를 찾아낸다던가 더우기 《굴러 다니는 예비》를 손쉽게 발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아직 복구 건설 중에 있는 것도 많고 여기저기에 유휴 기자재들이 널려 있던 몇 년전만 하여도 로동자들이 사상 동원만 되면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구 시기나 신설 시기에는 새로 생산 수단과 자금이 대량적으로 투입되고 로력이 많이 인입되므로 생산 장성 속도가 보다 빠를 수 있으며 또 이때에는 새로운 기계 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조성된 가능성들을 일시에 다 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비들이 잠재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생산의 추가적 장성을 위한 가능성들이 쉽게 발견되고 이에 따라 생산은 더욱 빨리 장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구기가 끝났고 기술적 개건에 의하여 기술적 장비가 상당히 제고되였으며 새로운 기본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단계에서 생산 장성을 위한 가능성은 오직 현존 로력과 생산 수단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즉 조직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의하여 발견되고 동원될 수 밖에 없다.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라》는 우리 당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제 지도에서의 조직 사업이란 변천되는 환경에서 제기된 경제 과업 실천을 위하여 사람들을 옳게 포치하고 동원하며 로동자들에게 생산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기계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 가도록 정비 보수하고 부속품을 예견성 있게 해결하여 주며 일상적으로 하부 실정을 료해하고 그에 적응한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결국 있는 로력, 있는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 사업에 귀결된다.

우리는 공장 당 위원회의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고 정치 사업이 계속 심입되여 대중의 높은 열의가 견지되는 조건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조직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생산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기 위한 투쟁에서 초보적이나마 몇 가지 경험을 얻었다.

있는 설비를 더 잘 리용하여

《조직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에

서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는 데 있다》 (김 일성,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지난 해 우리 공장의 생산 조직 사업에서 가장 큰 결함은 바로 일을 벌려만 놓고 기본 생산 부문에 력량을 집중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결과 일부 기본 설비들은 부속품도 채 갖춰지지 못한 채로 돌아 갔으며 어떤 설비들은 고장이 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속품을 깎고 보수하고 하는 등의 혼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다. 설비의 기술 관리 제도와 과학적인 보수 체계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본 설비들로 하여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자주 멎게 하거나 오래 멎게 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지난 해에 기계가 사고로 인하여 정지한 시간 때문에 손실 당한 면 및 스프사만 하여도 25.5톤 이상에 달한다.

예비 부속품을 확보하고 설비에 대한 기술 관리와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여기에 금년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예비가 있었다.

우리는 이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우선 1~2개월분의 예비 부속품 확보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부속품은 수백 수십 가지이다. 정방기에 필요한 것과 직기에 필요한 것, 빨리 마모되는 것과 오래 쓸 수 있는 것, 쉽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기 힘든 것 등등이 각각 다르다. 이 각양 각이한, 많은 것들을 동시에 모두 내부 력량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속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빨리 마모되는 것, 생산하기 비교적 까다로운 것부터 해결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부속품들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다른 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방적 설비의 부속품 생산에 특히 력량을 기울였다. 그것은 방적 설비의 부속품이 좋은 것으로 충분히 확보되여야만 실의 생산량도, 질도 높아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다음 공정 제품들인 직물류의 생산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 력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를 총 동원하여 이러한 방향에서 예비 부속품 확보 사업을 조직한 결과 5월 말에 와서는 가장 기본적인 종류의 예비 부속품들을 2개월분 이상 각각 보수에 선행시켜 확보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설비의 보수 체계 및 기술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병행시켜 왔다.

예비 부속품 문제가 점차 풀리고 설비의 관리, 보수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설비의 보수 시간은 현저히 단축되였으며 나아가서 설비의 사고가 결정적으로 축감되였다.

이 모든 것은 설비의 가동 시간을 현저히 증대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금년 상반년 기간에 우리 공장의 중요 설비인 방적 설비의 기계 정지 시간은 계획보다 1만 1,600시간 이상, 직포 설비의 기계 정지 시간은 계획보다 2,400시간 각각 적었는바 이에만 의하여서도 훨씬 많은 면 및 스프사와 직물을 계획보다 더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설비 관리와 보수 사업의 개선은 또한 설비 부속품의 소비량 자체도 감소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상반년 동안에 북 3만 3,000여개, 강침류 22만 여개를 비롯한 수 많은 중요 기료품들을 계획에 예견한 것보다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하나의 고리—예비 부속품의 확보와 기본 설비의 관리 보수 체계의 확립에 력량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기본 부문의 생산을 제고함으로써 전반의 앙양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즉 중심을 틀어 잡음으로써 전면을 이끌고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중심만 보고 전면을 돌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한다 하여 전반에 관

심을 적게 돌린 결과 일부 품종과 지표의 계획을 미달한 것과 같은 년초에 있었던 일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앙양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관리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에 더욱 침투케 하고 매개 관리 부서들에서 경영 활동 분석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뒤떨어지는 고리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시에 약한 고리에 력량을 포치하여 조직 사업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기업 관리에서 전반을 돌보면서 중심을 틀어 잡으며, 중심을 풀어 생산의 전면적 앙양을 보장하는 등 예비를 탐구하는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 현 시기 예비 동원에 있어서 조직 사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절실히 체득하였다.

만일 몇년 전처럼 우리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몇번 연설이나 하고 강조나 하여 증산의 예비를 찾을 것만 생각하고 조직 사업에 제1차적 관심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금년에 생산 계획을 달마다 초과 완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예비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각 직장 내부를 튼튼히 꾸렸다

모든 직장들을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직장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공장에서 중요한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으로 된다.

이에 있어서 과거에는 직장 간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제거하는 문제가 보다 전면에 나섰다면 오늘은 직장 관리 일'군들의 조직자적 수완을 높여 직장 내부 관리 조직 사업을 개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기업소적인 생산 관리 사업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 서고 설비에 대한 보수 체계와 예비 부속품 확보 문제가 해결된 후 설비 리용의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매개 직장 내부 조직 사업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정을 타산하여 직장 당 단체들의 통제적 기능을 제고하고 매개 직장 지도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함께 특히 표준 직장 창조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표준 직장 창조 운동—이것은 매개 직장의 내부 조직 사업의 수준을 가장 선진적인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운동이다. 즉 이 운동은 매개 직장으로 하여금 모든 측면에 있어서—설비 관리를 비롯한 기타 일체 기술 관리에 있어서, 로력 조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산 문화의 확립과 내부 채산제 운영에 있어서—타에 모범으로 될만한,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혁신 운동이다.

결국 이것은 기업 관리 조직 사업을 가일층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을 앙양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공장 지도부는 이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수다한 직장들에 동시에 많은 지도 력량을 포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단위—가장 기초적이고 비교적 관리 수준이 낮은 혼타면 직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하여 그에서 모범과 경험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지도 일'군들은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모든 기존 제도와 기준들을 재검토하였다. 지도가 생산에 침투하고 로동자들이 관리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기술 관리 규정과 표준 조작법이 새로운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게 보다 완성되였다. 또 생산에 필요한 공구, 지구, 측정 도구, 도구함, 비품 등 일체 작업 조건이 재정비 보충되였으며 주위 환경이 일신되였다. 나아가서 로력 조직, 내부 채산제 조직 및 사무 조직과 기술 경제적 지표들의 분석 방법도 구체적으로 연구 개선되였다.

3개월 간에 걸친 이 과정을 통하여 혼타면 직장에서는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고 직장 관리 일'군들의 지도 수준이 제고되였다. 결과 이 직장은 가장 어지럽고 락후하던 직장으로부터 선진적인 타에 모범으로 될 만한 직장으

로 혁신되였다.

이것은 생산에도 반영되였다.

금년 1월에 혼타면 직장은 생산 계획을 95.6%로, 로동 생산 능률 계획을 93.7%로 각각 미달하였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3월부터는 매달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에는 생산 계획을 112.1%로, 로동 생산 능률 계획을 114.7%로 각각 초과 수행하게 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3월부터는 매달 5만원의 리익금을 내고 있다.

생산 실적이 날로 올라 가며 불합격품 및 불량품 생산이 근절되고 내부 채산에서 계속 리익이 나는 직장에로의 혼타면 직장의 전환—이것이 바로 표준 직장 창조 운동의 첫 성과이다.

이 경험은 다른 직장들에도 보급되고 있다.

표준 직장 창조 운동은 직장 내부 관리 조직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 증산과 절약의 거대한 예비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경험은 조직 사업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생산 실적만을 강조하면서 내부 조직 사업을 제2차적인 것으로 차요시하던 일부 직장 지도 일'군들의 견해를 완전히 타파케 하였다.

예비는 합리적인 로력 조직에도 있다

합리적인 로력 조직은 보다 적은 로력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 설비를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증산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설비의 합리적인 리용 그 자체가 로력 조직의 부단한 개선을 요구한다. 즉 로력을 잘 조직 못한다면 많은 로력을 랑비케 할 뿐만 아니라 설비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게 되며 설비의 단위 가동 시간당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와 있는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는 호상 긴밀한 련관을 갖고 있다.

로력 조직을 잘 하고 로력 예비를 적극 탐구해 내는 것—이것은 오늘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관리 부문 및 비생산 부문 일'군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그들을 생산 부문에 돌리며, 생산 부문 내에서도 보조 부문을 축소하여 기본 부문에 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도록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 시기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지고 관리 부문 및 비생산 부문 사업 조직이 비교적 째워진 조건하에서 이미 양성된 기능 로력을 될수록 기본 생산 부문에서 가장 훌륭히 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 우리의 일부 일'군들 속에는 기능공 타령만 하면서 이미 양성된 기능공들을 가정 부인이라 하여 잘 조직 동원하지 않는 결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가정 부인들에게는 정치 사업을 할 시간이 없다》, 《유모들은 젖 먹이는 시간 때문에 지장이 많다》고 하면서 가정 부인들을 일률적으로 기본 작업으로부터 떼내여 일정한 정량도 주지 않고 부차적인 일에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로동자들의 70% 이상이 녀성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정 부인의 비중이 30%이고 그것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조건하에서 가정 부인들의 로력을 계속 부차적 부문에만 돌리는 것은 사실상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관점이며 예비를 숨겨 두고 동원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이다.

특히 우리 공장에서 가정 부인들, 유모들은 대부분이 비교적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기대공들이며 핵심적인 기능공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3월,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하에 《유모 작업반》을 시험적으로 조직하였다. 가정 부인들이 제일 많은 제 5 직포 직장에서 조직된 이 작업반에는 지난 날 20 여대씩의 직기를 담당하다가 시집을 간 뒤부터 보조 작업을 하여 오던 23명의 유모들이 망라되였다.

물론 이들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어린애를 키우면서 기계를 돌려야 하였으며, 가정을 돌보면서 학습도 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고 작업반장 천 봉녀 동무를 비롯한 핵심 로동자들이 완강한 노력과 집체적 지혜를 꾸준히 발휘한 결과 오늘 그들은 생산에서도 생활에서도 혁신을 가져 오게 되였다.

그들은 호상 방조의 기풍을 세우고 작업 시간 중에 젖 먹이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교대제로 합리적으로 조절하였다. 그리하여 조금도 기대를 세우는 일이 없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모범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들은 다른 작업반과 동일하게 부과된 계획량을 매일 130~140%씩 넘쳐 수행하고 있다.

오늘에 와서 그들은 또한 생활 문화도 수립하고 정치 학습과 기술 전습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내게 되였으며 다른 작업반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경험에 토대하여 오늘 제 5 직포 직장에는 2개의 《유모 작업반》이 더 조직되여 다같이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직장에서의 가정 부인 로력 조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였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 공장에서 나날이 늘어 가고 있는 가정 부인들과 유모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옳은 길을 찾아내게 되였다.

우리가 동원 리용한 예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업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생산 조직 사업을 보다 개선한다면 더 큰 생산 장성의 가능성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생산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경험과 지식은 날로 풍부해지고 있다. 이것은 보다 높은 수준에로 기업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따라서 《예비를 다 동원했다》, 《예비가 없다》는 것은 현실의 발전을 무시하는 견해이다.

예비는 항상 있다. 문제는 그것을 동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 노력을 다하는가, 어떻게 대중에 의거하여 이 사업을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비가 동원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직 사업에 달려 있다.

《조직 사업에는 고정 불변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물이 발전하고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조직 사업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김 일성,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따라서 우리는 생산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조직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평양 방직 공장 지배인)

이것은 또 하나의 대학 과정이다

지 창 익

우리 평양 운수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옥류교 건설 공사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도 일부 학생들은 건설 현장에서 실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건설 공사에 직접 참가한 이 옥류교는 총 길이가 682메터, 너비가 28.5메터나 되는 우리 나라 최대의 교량이다. 이에는 막대한 량의 콩크리트, 철근, 원목 등이 소요되였으며 그의 시공 규정은 아주 복잡하였다. 만일 일제 시대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높은 기술을 요하는 교량을 건설하려 하였다면 적어도 17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옥류교 건설자들은 17년이 아니라 1년 10개월에 이 공사를 기본적으로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운수 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생산 로동 기간에 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경간 건설 공사를 담당 수행하였으며 이 행정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 교육 정책의 정당성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였다.

리론과 실천

우리가 생산 로동에 참가하게 된 초기 일부 학생들 속에는 우리가 일하게 된 대상이 교량 건설이란 기술 로동인 것만큼 운수 건설학부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대상이나 기타 다른 학부 학생들에게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별로 신통한 것이 못 된다는 일부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이것은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 교육 정책을 잘못 인식한 데서 나오는 편향이였다. 우리 당 교육 정책은 어떤 부문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산 로동에의 참가가 그들을 육체 로동에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며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 우리 학교에 있어서도 철도 전기화 및 차량학부, 철도 운영학부 등 모든 학생들이 교량 건설 행정에서 유능한 기능자로 자라난다는 것은 자기들의 전공 과목을 더욱 깊이 리해하고 완성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생산 로동에 참가하는 첫날부터 로동 현장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보충하고 풍부화하는 배움터로 전변시켰다.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 《건설장은 대학 강당의 연장이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소유하자》—이것은 우리 집단의 일관된 구호였다.

우리는 실천에서 비교적 단련된 건설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술 지도원과 후에는 질 검사원까지도 자체로 배치하여 전체 기술 공정을 학생들의 손으로 지도하게 하였으며 또 각 학부들에는 8~10명으로 되는 기술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그를 건설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케 하였다. 이리하여 기술 크루쇼크는 학생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시공 공정 내용을 해설하여 주는 한편 정상적으로 기능 전습을 조직하며 기술 문제들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일상적인 조직체로 되였다.

우리가 취한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 로동을 통하여 비로소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게 하였으며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보충하고 풍부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능한 기능자로 자라나게 하였고 공사의 질도 훌륭히 보장하게 하였다. 건설 공사에 처음 착수하였을 때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와 작업 현장에서 시공 공정의 기술적 요구들을 수차에 걸쳐 강의 받았으나 그를 응용할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닥치는 대로 일하였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이미 배운 지식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철근 조립과 같은 단순한 례 하나만 들어도 바로 그러하였다. 초기에는 철근들의 위치와 형태가 잘 맞지 않아 5~6차의 질 검사를 거쳐야 겨우 합격되였고 조립 틀을 사용할 데 대한 요구도 잘 관철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포착한 기술 크루쇼크원들은 실지 작업하는 대상을 놓고 철근의 사명과 구조에 대한 리론적 해설을 더 구체적으로 주었다. 그러한 결과 학생들은 쉽사리 리론을 리해하고 그를 응용하게 되여 철근 조립의 정확성을 보장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철근 작업에 대한 20 여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안까지를 제기하게 되였고 로동 생산 능률도 급속히 제고되게 되였다. 이것은 건설 현장에서의 학습이 학교 교실에서의 학습보다 얼마나 효과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학생들의 지식을 보충하고 풍부화함에 있어서 교원들이 그들과 같이 생산 로동에 참가한 것은 더욱 효과적이였다. 사실 운수 건설학부 교원 구성만 보더라도 건설장에서 지도적으로 일한 경험을 가진 교원이라고는 없었으며 따라서 교량 구조에 대하여 다만 서재와 실험실에서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원들은 건설 공사를 조직 지도하면서 우선 학생 및 현장 일'군들과 같이 일하며 배우고 다시 배워 주는 방침을 세우게 되였다. 운수 건설학부 교원들은 작업반에 속하여 같이 일하면서 시공 방법들에 대하여 학생들과 토론하였고 제기되는 리론적 문제들을 개별 담화의 방법으로 설명하여 주었다. 로동 현장에서 교원들이 진행한 이러한 담화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잊을 수 없다고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어려운 기술 문제들을 소화하고 응용하게 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난문제들을 창발적으로 처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례를 들어 당시 현장에서는 주보를 콩크리트 친 다음 밑판 콩크리트를 여하히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들이 구구하였다. 종전의 안에 의하면 콩크리트를 강'바닥에서 10 여메터 높이로 일일이 들어 올릴 것이 예견되여 있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안이였다. 이때 차량학부 리 병학 학생은 상판에 구멍을 뚫고 콩크리트를 내리움으로써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 교원들이나 기술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안이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이 기간에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소유한 유능한 기능공들로 자라나 609명의 전체 학생들이 평균 6급공의 높은 기능 자격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또한 철도 전기화 및 차량학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기계화 브리가다에 의거하여 많은 기계와 설비들을 창안하였고 손수 제작까지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 로동을 통하여 얻은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다.

학교와 현실

생산 로동은 학교 교수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을 현실 생활에 접근케 함으로써 종전에 이 분야에 적지 않게 존재하였던 형식주의의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그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시기 교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적지 않은 교원들은 교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체계도 옳게 세울 수 있고 학생들에게 리론적 방조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면적으로 교수 시간을 늘구는 데만

골몰하였지 실제로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리해를 어떻게 해야 쉽게·하겠는가에 대하여서는 덜 관심하였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누구도 이런 경향이 해로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였다.

생산 로동에 참가했다가 돌아 온 교원들은 생산 실습과 리론 강의, 생산 로동과 교수 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교량 건설에서 돌아 온 학생들에게 교량,건설 시공 등 강의에서 해당한 구조나 시공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종전에 한 강의를 취급하던 내용을 이제는 30분에 설명하여도 학생들은 더 잘 리해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교원들은 또한 자기들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강의에서 어느 것이 본질적이고 어느 것이 부차적인가도 명확히 알게 되였다. 지난 날 교량 교수에서는 시공적 측면이 아주 약하게 취급되였었다. 즉 교량 구조의 합리적 형태를 분석하면서 력학적 작용과 최소 단면만을 주로론하였고 시공의 편리성에 대하여서는 극히 간단하게 취급하였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한 결과 우리들 자신이 금번의 교량 공사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처럼 이러한 경향은 학교를 졸업한 기사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례를 들어 설계에 예견된 상판 철근들은 규격 철근의 수는 한 개를 감소시키나 그 반면에 시공에는 극히 복잡한 배치로 되여 있었다. 그리고 현수보 철근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휘틀의 예비 올림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골조 조립에서 적지 않은 로력 랑비와 시공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기 학교에서의 교량 교수 사업이 내포하고 있던 결함들과 직접 관련되여 있었다. 그리고 교량 공사에서 돌아 온 학생들도 이제는 종전과는 달리 현실에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주로 질문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우리 교원들로 하여금 종전의 교수안과 교수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원들과 학생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현실에서 진지하게 배우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진 상태에 있던 과학 연구 사업이 또한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되였다. 지난 날 건설학부 교원들은 교량 건설을 실제적으로 해 본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학생 과학 크루쇼크 성원들에게 주는 연구 쩨마도 자연 서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기하는 데 그쳤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학생들의 과학 연구 사업은 실천과 동떨어진 페단이 없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페단을 없애기 위하여 생산 로동에 참가하는 초시기에 운수 건설학부를 비롯한 기계, 전기 등 각 부문의 유능한 교원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과 공정의 제 요구들을 료해하고 대학적으로 건설의 기계화, 건설 조직의 합리화, 건설의 질 제고 및 기타의 기술 리론적 문제 등 30 여건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을 전개케 하였다. 이리하여 생산 로동에서 돌아온 오늘에 와서는 4, 5학년 학생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어 1학년 학생들까지도 공사 현장에서 탐구한 새롭고 현실적인 쩨마에 근거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였으며 전국 대학생 꼰페렌치야에도 8건이나 출연하게 되였는데 그 중에는 1학년 최 경선 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창안하고 제작한 《쎄멘트 하차기》와 또 1학년 박 승희 학생의 《옥류교 건설 시공 경험》 등도 들어 있다. 지금 우리 학교 과학 크루쇼크원들 앞에는 건설 현장에서 제기된 연구 쩨마들을 체계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여 있다.

새 교육, 새 인간

새 사회, 새 교육 제도하에서 우리 학생들은 부단히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새로운 인간들로 장성하여 간다. 그러나 학교 교실에서의 교육 교양 사업만으로써는 그의 완벽을 기할 수 없다.

우리가 생산 로동에 참가하였던 초기 우리 집단 속에는 아직도 로동을 기피하며 벅찬 현실 속에 뛰여 들기를 주저하며 부닥친 난관 앞에서 동요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점도 학생 집단이 건설 로동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완강한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계속되는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을 통하여 항일 유격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체득하고 그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전후 두 차례에 걸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부닥친 난관들을 심장으로 뚫고 나아가면서 강의한 의지를 가진 열렬한 혁명 투사로 자라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3개월 여의 전 기간에 우리 학생들은 교량 공사를 우기 전에 완공하라는 수령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빨리 걸어도 부족하여 뛰여 다녔으며 작업 현장에 밥을 날라다 먹으면서까지 야간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아랑곳 없이 아득히 높은 작업장에서 일'손을 다우쳤으며 작업반과 작업반, 개인과 개인 간에 치렬한 경쟁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루의 계획을 불과 15~30%밖에 수행하지 못하던 초기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2주일만에는 매일의 계획을 400% 이상으로 초과 완수하게 되였으며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기세를 계속 견지하였다. 이러한 행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과 수령의 교시를 목숨으로써 관철하는 붉은 대학생으로 자라났다.

우리 학생들은 또한 이 기간에 혁명적 동지애의 사상으로 자기 자신들을 튼튼히 무장하였다. 치렬한 경쟁 운동에서 그들은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뒤떨어진 동무들을 성심껏 도와 주는 아름다운 미풍을 확립하였다. 이 선두에는 언제나 로동당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휴식 시간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자기들이 맡은 작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대학의 모든 동무들이 린접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고등 운수 전문 학교와 고등 건설 전문 학교 학생들까지도 기술적으로 방조하게 되였다. 이러한 행정에서 우리 집단 내의 일부 락후한 학생들도 마침내 로동을 사랑하고 집단 생활에 단합된 새로운 인간들로 육성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학생 집단은 더욱 통일되고 단결되였으며 생산 로동에서 돌아 온 지금에 와서도 모두가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며 자진하여 사회 사업에 동원되는 등 아름다운 풍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생산 로동을 통하여 정서 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다. 지난 시기 기술 학교 학생들이라면 감정이 무딘 《목석》과도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페단도 없지 않았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인상을 줄만치 문학 예술 활동과는 인연이 멀게 생활하였었다. 그러나 매일 매 시각이 영웅적 서사시로 충만된 로동 생활은 그들의 감정을 심히 격동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영웅적 생활을 쩨마로 하여 문학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노래도 지었고 그림도 그렸다. 그리고 각 작업반에서 발표하는 써클도 지난 시기 학교에서 숱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애써 준비한 것보다 오히려 그 성과가 컸다. 그 뿐만 아니라 로동과 체육 문화 사업을 결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육체도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단련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더 명랑하고 락천적인 인간으로 장성케 하였다.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 정책은 정녕 우리 학생들을 당과 인민에게 충실한 열렬한 혁명 투사로 만들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자로서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인간으로 육성한다. 우리가 옥류교 건설 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것처럼 생산 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대학 과정이였다. 그러나 이 행정에서 우리가 거둔 이상의 모든 성과들은 극히 짧은 기간에 얻은 초보적인 것이다.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며 우리가 이미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대학 집단의 당면한 주요 과업으로 제기되여 있다.

(필자는 평양 운수 대학 학장임)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일제와 봉건 주의를 반대하여 일어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 (1932~1945)

고 정 수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은 일제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왔다.

일제와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궐기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은 김 일성 동지의 항일 무장 투쟁의 지도와 영향하에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이 달성한 승리의 력사는 항일 무장 투쟁과 그의 영향하에 일어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의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의 계속이다.

I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그를 중심으로 전국적 판도에서 혁명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력량의 결속과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1933년 9월에 김 일성 동지께서는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혁명 군중을 튼튼히 집결시킨다면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할 수도 있으며 제기된 복잡한 혁명 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 내외의 광범한 혁명 력량을 각종 반일 혁명 조직들에 단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1) 15~16페지).

1930년대 초기부터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 북부 국경 지방에 파견된 정치 공작원들과 광범한 혁명 대중과의 직접적 련계가 맺어지기 시작하였고, 각지에서 혁명 단체들을 조직 확대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였다.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각종 혁명 단체들 례하여 평양, 서울, 흥남,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각지 산업 지구들에서 산업별 또는 직장별로 로동 조합들이 재건 확대되였고, 함남, 함북,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안과 삼남 지방 및 기타 일련의 지방들에서 면, 군 범위로 농민 조합들이 재건되였다. 그 중에는 수백 명의 성원을 가진 조직들이 다수였으며 그 구성에는 근대적 산업 로동자를 포함한 광범한 로동자 대중과 농업 로동자 및 빈농 대중이 망라되였다. 혁명적 로조, 농조의 조직을 위한 투쟁은 우선 로동자, 근로 농민들을 자기 조직에 결속하며 그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시키는 투쟁이였고 이 시기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주요 특징의 하나였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광범한 혁명 력량을 각종 반일 혁명 단체에 결속하고 《처음에는 이들에 강한 반일 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의 혁명 의식을 각성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이들 속에서 선진 분자들을 선발하여 유격 대오나 공산주의 조직에 받아 들여 그들을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육성해내야 한다》(《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1) 16페지)라고 교시하셨다.

각종 혁명 단체들, 례하여 혁명적 로조와 농조, 그리고 대중의 사상 의식 제고에서 중요 수단이였던 독서회, 야학 및 비밀 출판물들은 대중의 결속과 혁명화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으며 그가 선전한 항일 무장 투쟁의 성과들은 반일 대중에게 많은 힘과 고무를 주었다. 특히 이 시기에 반일 대중들 속에서는 직접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정치 공작대들에 의하여 《전체 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격문》, 《전 조선 동포들은 일어나라!》등의 격문과 《혁명이란 무엇인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착취란 무엇인가?》, 《계급이란 무엇인가?》 등의 소책자를 비롯한 각종의 혁명적 출판물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혁명적 출판물들의 보급은 일제의 기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광범한 대중의 민족적, 계급 의식의 제고와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로동자 근로 농민 대중의 결속과 혁명화의 과정은 그들의 조직적이며 의식적인 진출을 동반하였고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서의 대중적인 성격을 점차 강화시켰다. 산업 로동자들의 전위를 이루는 금속 로동자들과 광산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이한 부문의 광범한 로동자 대중이 파업 투쟁에 합류하였고, 각지 농촌에서 빈농, 고농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농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대중적인 파업과 시위, 폭동적 진출 등 그 규모와 투쟁 방법에서도 일정한 발전을 표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단체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파업 투쟁을 호소하였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혁명적 로조들은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다. 파업 투쟁은 로동 계급의 단결과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켰고 그들의 경제적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일제의 새 침략 전쟁 준비에 항거하여 소규모 공장 기업소에서만 아니라 일제 세력의 지반이 강한 근대적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에서 거센 파업 투쟁이 전개되였다. 1932~1933년에 서울, 대전, 함흥 기타 지방의 방적 공장과 평양, 부산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계속적인 진출과 더불어 광양 광산, 평양 곡산 공장, 인천 부두, 청진 운수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같은 보다 대규모적인 진출이 시작되였다. 특히 1934년부터 금속 부문 로동자들과 광산 로동자들이 련이어 파업에 돌입하였다. 1934년 10월에 최초의 대규모적인 금속 제련 부문에서의 진출인 흥남 제련소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1935년 7월에는 이 시기 대표적인 진출의 하나인 남포 제련소 1,200명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있었다. 이 파업 투쟁들에서 로동자들은 보다 조직적인 완강한 진출로써 자기들의 단결된 위력을 시위하였고 기업주에 대한 부분적인 승리를 획득하였다.

이 파업들은 기타 여러 부문 로동자들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을 주어 파업 투쟁은 방적, 고무, 항만, 운수, 토목, 건설 기타 각이한 부문의 로동자들을 망라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 5년 간(1932~1936)의 파업 투쟁은 과거 10년 간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장성하였다(불충분한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1~1921년 280여 건, 1922~1931년 870여 건, 1932~1936년 830여 건의 파업이 있었다).

이 장성은 다만 량적인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였다. 일제의 새 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파쑈적 공세와 착취가 가중되던 정세에서 로동 운동에서의 정치적 성격은 더욱더 강화되여 갔다. 로동자들은 압박의 여러 현상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 등의 경제적 요구와 더불어 민족적

차별 대우의 철폐, 일제의 새 침략 전쟁 준비의 반대, 8시간 로동제의 실시, 로조 조직의 자유, 파업 투쟁에 대한 경찰의 간섭 금지, 정치범의 석방 등의 정치적 요구들을 제기하였다. 더우기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로조들의 활동으로 파업 투쟁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지향하며 쏘련을 옹호하고 중국 혁명을 지지하는 정치적 요구가 일관되였으며 그의 성격이 점차 강화되여 갔다.

로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농민들의 진출도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농민 운동의 발전에서 혁명적 농조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였다. 이 시기에 근로 농민들은 10여 년 간의 투쟁 경험에 기초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혁명성을 발휘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실시된 소위 《구농》 정책도 농민 운동의 고조를 저지시킬 수 없었다. 농촌 경리의 만성적 위기와 관련하여 지주들의 횡포는 극심하여 갔고 각지 농촌에서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의 감하를 위한 지주대 소작인 간의 개별적 쟁의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다. 불충분한 통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3년에 약 2,000건의 쟁의에 8,000여명이 참가한 데 비하여 1935년에는 7,500여건의 쟁의에 1만 600여명의 소작농들이 참가하였다. 소작 쟁의는 농민들의 완강한 진출로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승리로서 끝났다.

농민 운동의 확대 과정에서 폭동적 진출과 그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여 갔다. 전남 령암과 충남 론산 지방 농민들은 적기(赤旗) 시위를 전개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에게 타격을 주었고 경남 량산과 함안에서는 경찰들과의 류혈적 충돌까지 있었다. 농민들은 량곡 수탈과 기아를 반대하며 고리대와 가렴 잡세를 반대하고 금융 조합과 산림 조합 및 수리 조합에 의한 략탈을 반대하여 나섰다. 혁명적 농조들은 농촌에서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며 로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구호를 선전하였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과 일제 주구들에 대한 습격을 조직하였고 경찰의 검속으로부터 피검된 동지들을 탈환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혁명적 농조들은 동지 탈환대, 규찰대를 비롯한 일련의 투쟁 대오를 편성하여 자기 활동을 계속하였다. 농조 위원회들은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에 항거하는 투쟁을 조직하였으며 많은 선전 삐라들을 준비하여 대중 속에 산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격문 투쟁과 주구 타진 투쟁이 있을 때마다 경찰의 일대 수색을 유발시켰고 공산주의자들과 수 많은 농조 성원들의 피검을 동반하였다.

이상과 같이 항일 무장 투쟁 발전의 첫 단계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간고한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발전의 로정을 걸어 왔다.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의 결속과 혁명화에 있어서 혁명 단체들 례하여 혁명적 로조와 농조들은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으며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고 일제의 새 침략 전쟁 준비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을 지향하는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높았다. 이 시기 대중 운동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대중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의 강화, 보다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투쟁 형태와 방법의 발현 등 일련의 전진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 운동의 일정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로동자, 농민의 광범한 대렬의 결속과 그들의 투쟁에서 통일성이 부족하였던 제한성은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 제한성은 우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자로서의 공산당이 없었고 새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경험이 어렸으며, 혁명적 로조와 농조들은 공고한 대중적 단체로 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서 설명된다. 특히 그것은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와 종파주의의 후과와도 관련되였다. 종파분자들은 이 시기에도 혁명 운동에 막대한 후과를 끼쳤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대중 단체들 속에서 전개된 반종파 투쟁의 압력에 의해 마치 종파 행동을 《청산》한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각기 중요 공장 지대와 농촌에서 자파 세력의 확장에 광분하면서 파쟁을 의연히 계속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군 하였다. 또한 종파주의의 사상 여독을 완전히 극복 못한 로조, 농조의 일부 간부들은 대중 운동에서 흔히 좌경적 오유들을 범하였다. 종파 분자들의 분렬 행동과 좌경적 위험은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력량의 통일 단결과 대중 운동의 전진에서 크나 큰 장애로 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성과 장애를 극복하고 전국적 판도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력량의 통일 단결과 대중 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일제의 파쑈적 탄압과 새 침략 전쟁의 위기가 증대되는 정세에서 우리 나라 혁명 앞에 나선 절박한 객관적 요구로 제기되였다.

Ⅱ

193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기치하에 혁명은 일대 고조기에 들어 섰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 의한 대중 운동에서의 통일성의 강화와 옳은 로선상에서의 대중 운동의 발전은 1930년대 후반기 대중 운동의 발전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인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파쑈적 공세와 새 침략 전쟁의 위기가 증대되던 정세에서 조선 혁명 앞에 나선 절박한 객관적 요구에 기초하여 1936년 2월과 5월에 각각 남호두 소자지하 및 무송현 동강 회의를 소집하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민족 해방 운동에 광범한 대중을 인입할 데 관한 국제 공산당의 결의(《국제 공산당 제 7차 세계 대회의 결정서》, 모쓰크바, 조선문 판, 1935년, 59~60페지)를 우리 나라 혁명의 실정에 적응하게 구체화하였다. 그것은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전투력의 공고화와 항일 무장 투쟁의 확대 강화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전개와 반드시 결합하여 진행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당 창건의 준비 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였다. 이 회의들에서 제시된 김 일성 동지의 투쟁 방침에 의하여 국내 혁명 단체와 대중 운동에 대한 직접적 련계와 지도가 강화되였고,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1936년 5월 5일에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고 그의 10대 강령이 선포되였다. 이것은 국제 반파쑈 인민 전선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선 인민의 절박한 력사적 숙망인 반일 력량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는 거대한 사변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렬한 전투 행정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장백을 비롯한 동북의 일련의 지방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그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면서 1936년 후반기부터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이행하였다.

1937년 1월에 우리 나라에서 조국 광복회 운동의 확대와 당 창건의 준비 사업 및 국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이 조직되였고, 이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많은 정치 공작원들이 국내 각지에 파견되였다. 그들은 혜산, 갑산, 신갈파, 호인, 삼수, 풍산, 무산, 길주, 성진, 명천, 경성, 함흥, 흥남, 신흥, 원산을 비롯한 함남, 함북의 각 지방과 신의주, 후창을 비롯한 평안도 지방 및 기타 지방의 광범한 반일 대중 속에서 활동하면서 각 지방의 실정에 적응한 조국 광복회의 국내 대중 조직을 결성,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후 함남 반일 투쟁 동맹과 함북 반일 동맹의 조직은 바로 이것을 례증하여 준다.

조국 광복회 운동에 광범한 반일 대중을 결속하고 그들에게 우리 민족 해방 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해설 선전하며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3. 1월간》, 《화전민》 그리고 수 많은 소책자와 격문을 비롯한 혁명적 출판물들은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광범한 반일 대중의 혁명화와 더불어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옹호와 조선 인민 혁명군에의 참군 운동이 일어났으며, 혁명의 대중적 지반은 급속히 확대되여 갔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38개의 하부 조직과 수 많은 성원들을 결속하였고 각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의 지반이 확대되였으며,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여 갔다. 조국 광복회의 사상적 기치하에 혁명적 로조, 농조들의 재건 투쟁이 전개되였다.

조국 광복회 운동의 확대는 일제 식민주의자들에게 크나큰 공포를 야기시켰다. 1937년 봄에 악명 높은 군벌이며 조선 총독이였던 미나미(南)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에 대하여 특히 대경계를 할 것과 철저한 파쑈적 탄압을 가하도록 교형리들을 고취하면서 전국적인 대검거를 단행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파쑈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던 1937년 6월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 지휘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은 보천보 작전을 진행하여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광범한 반일 대중에게 투쟁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이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조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 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치여 준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기에 조국 광복회의 대렬은 일층 확대 강화되여 갔다. 조국 광복회는 창건된 후 불과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장백을 비롯한 동북의 일련의 지방들과 우리 나라 북부 국경 지방, 그리고 국내 중요 산업 도시들과 농촌들을 포괄하고 수십 여만의 반일 력량을 결속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기치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대중의 결속은 반일 반전 투쟁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 담보로 되였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과 수 많은 반일 혁명 단체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옹호하고 그를 성원하며 특히 조선 인민 혁명군의 국내 유격 활동에 호응하여 공동으로 진출하였다. 1937년 8~9월에 갑산군 운흥면과 보천면 일대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모연 공작대의 유격 활동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원들의 공동 진출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지지 성원은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서 대규모적 유격 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적들과의 격렬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각지의 반일 혁명 단체들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의 혁명 투쟁을 지도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의 강화 발전에 따라 그의 영향은 우리 나라 각지에 파급되였고 전국적 판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로동자, 농민 대중의 반일 반전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파쑈적 탄압이 혹심한 조건에서도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며, 일제의 침략 전쟁과 전시 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로동자들의 진출은 특히 군수 공장, 기업소들과 군수 시설들에서 많이 일어났으며, 주로 파업과 대중적 태업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였다. 1937년 2월에 부산항에서 일어난 1,400명의 축항 건설 로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937년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단풍 철도 공사와 풍산 허천강 수전 공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장들에서 파업과 대중적 태업이 전개되였다. 1937년 7월에 있은 서울 조선 인쇄 주식 회사 인쇄공 460 여명의 태업을 비롯하여 대중적 태업은 운수, 광산, 조선, 어업, 정미, 제재, 가구 등 각이한 부문을 망라하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통하여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 등의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일제의 전시 정책과 로동의 군사화를 반대하였고 8시간 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나섰다. 1938년 3월에 해주 쎄멘트 회사에서 600 여명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 그리고 8시간 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파업 투쟁은 평양, 신의주, 청진, 라진, 흥남, 원산, 서울, 인천, 부산, 동래, 사천, 진주를 비롯한 기타 많은 지방들에서도 일어났으며, 로동자들은 경제적 요구와 더불어 전시 강제 로력 동원을 반대하여 나섰다. 특히 1938년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일제는 벌써 군수 물자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군수 생산과 군수 시설의 확장에 급급하면서 《국민 총 동원》의 표방하에 집단적 로력 동원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군수 시설 건설장과 공장 기업소에서 전시 강제 로동을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탈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38년 가을에 단풍 철도 공사장에서는 도합 2,000 여명의 로동자들이 탈주함으로써 공사를 부진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후 이러한 현상은 함경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에서 루차 발생하였다.

이 시기 로동 운동에서는 경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의 결합이 현저히 강화되였고 특히 반전적 성격이 강화되였으며 그의 사상적 기치에는 조국 광복회의 위대한 강령적 요구들이 일관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농민들의 진출도 강화되여 갔다. 농산물에 대한 수탈 정책의 가일층의 강화와 강제 《공출》, 강제 로동 등 물적 인적 자원의 동원으로 조선 농촌은 파멸적 위기를 점차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농조들은 토지 문제에 관한 조국 광복회 강령의 기본 요구들을 옹호하면서 농민 대중 속에서 중일 전쟁의 성격과 전쟁 형편을 해설하며 전시 농촌 정책의 략탈적 본질을 폭로하고 강제 수탈과 동원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선동하였다. 반일 반전적 성격은 농민 운동에서도 현저히 강화되여 갔다. 농민들은 전시 농촌 정책과 강제 《공출》 및 군수 시설 건설에의 강제 로력 동원을 기피하거나 또는 반대하여 나섰다. 중일 전쟁 전야에 비하여 소작권의 확보와 소작료의 감하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진출도 더욱 장성되여 갔다.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작 쟁의는 1936년에 9,370건이던 것이 1937년에는 1만 700 여건, 1938년에는 1만 1,570 여건으로 증가되여 갔다.

이렇게 암흑의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와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은 희망을 잃지 않고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였다. 대중 운동의 이와 같은 발전은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의 위대한 강령적 요구를 지침으로 하여 하나로 통일 단결된 힘이 있음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국 광복회는 우리의 민족 해방 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 해방을 위한 공동 투쟁의 기치 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동원 집결하는 데 있어 현저한 역할을 하였다》(《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광범한 반일 대중의 통일 단결과 더불어 대중 운동의 발전 행정에서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육성 단련되였고 우리 나라 각지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혁명의 씨를 뿌림으로써 이 혁명의 씨앗이 자라서 반일 민족 해방을 위한 혁명 대렬을 부단히 보충 확대할 수 있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반일 반전 운동은 이 시기 혁명 운동의 거대한 의의를 확증하여 주고 있다.

III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제의 제 2차 세계 대전에로의 돌입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 위기가 절박하였던 정세에서도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선 독립의 구호를 내던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높이 들고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견결히 전개》(《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31페지)하였다.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은 소부대 유격

활동을 전개하여 일제 침략자들에게 계속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국내 공작 임무를 맡은 여러 소조들은 라남, 웅기, 라진 등지를 비롯한 함북 지방과 국내 깊이 평양까지 침투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 소규모적 형태의 대중 투쟁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대중 운동은 의연히 반일 반전적 성격을 띠고 전개되였으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반일 대중들이 반일 반전 투쟁에 합류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깊은 지하에서 반일 혁명 단체들을 재건하면서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일 반전 사상을 선전하였고 도시와 농촌에서 격문 투쟁을 조직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항거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도록 선동하였다. 로동자들은 로동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파업과 태업 투쟁을 전개하여 전시 생산에 부단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진출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 평양, 청진, 부산, 기타 주요 산업 도시들과 만포, 운봉 수전 공사장을 비롯한 각지 건설장들에서 일어났다. 농촌에서 재건된 반일 혁명 단체들은 근로 농민들을 결속하고 농민 대중 속에서 일제의 전시 수탈 정책과 기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동하였다. 각지에서 농산물의 강제 《공출》을 거부하며 각종의 전시 부담과 강제 동원을 반대 기피하며 소작료의 감하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되였다.

청년들과 광범한 대중 속에서는 일제의 《징용》, 《징병》을 거부하는 투쟁이 일반적 현상으로 되였다. 1941~1943년 간에 일본으로 강제 《징용》 당한 67만 5,000 여명 중에서 도합 24만 2,000 여명이 집단적으로 탈주하였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일본 군대 내에까지 조직된 소규모적인 반일 반전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대중의 반일 반전 투쟁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일제의 중요 군수 공장의 하나인 청진 제철소 내의 지하 반일 반전 단체는 1943~1944년에 혁명적 로동자들을 규합하면서 반전 격문 투쟁과 전시 생산을 저하시키기 위한 태업 투쟁을 조직 전개하면서 반전 폭동까지 계획하였다. 또한 지하 반일 반전 단체들 중에는 적은 조직들이기는 하나 동지들을 규합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에 참군하며 그와의 련계하에 무장 봉기를 목적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평양에서는 철공소 로동자들을 규합하여 철공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제작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에 참군할 것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고 경남 진해만에 있는 일본 해군 부대 내의 조선인 병사들의 반일 반전 조직은 일제의 패망의 불가피성과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였다.

이와 같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 대중의 반일 반전 투쟁은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빨찌산들의 영용한 투쟁에 의해서 그리고 쏘련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승리적 전진에 의해서 고무되고 있었다.

❊ ❊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세기적 요구를 반영한 조국 광복회의 위대한 강령은 훌륭히 실현되였다. 그러나 미제가 강점한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들의 숙망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은 계속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자 제 7호 (루계 176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7월 15일　　인　　쇄 • 1 9 6 0년 7월 10일

ㄱ—31364　　값 50전

서적 안내

김일성선집

(제5권)

국판, 양장, 563 페지,
발행 부수 300,000 부, 발행 6월

선집 5 권에는 1957년 1월부터 1958년 6월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선집 5 권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건설 분야에서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 《함경남도 당 단체들의 과업》 등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와 조국의 륭성 발전에 바친 로작들이다.

또한 선집 5 권에는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 등을 비롯하여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형제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는 데 바친 로작들과 기타 적지 않은 문헌이 처음으로 수록된다.

(제6권)

국판, 양장, 예정 페지 580 페지,
발행 부수 300,000 부, 발행 7월

선집 6 권에는 1958년 7월부터 195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저술한 주요 로작들이 수록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등 당을 공고화하며 간부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을 체득시키는 데 바친 로작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계속적 앙양에 바친 로작들이 수록된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7월